

pISSN 3059-1090
eISSN 3059-1716

포용과 사회통합 연구

Journal of Inclusion and Social Integration

제2권 제1호

2026년 2월

pISSN 3059-1090
eISSN 3059-1716

포용과 사회통합 연구

Journal of Inclusion and Social Integration

2026년 2월 | 제2권 제1호

 한경국립대학교

차 례

유아 장애인식개선 그림책의 장애공감 및 다양성 존중 요소 내용분석 1

이은지, 조현근

예비 사회복지사의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17

이건희, 이건도, 최규갑, 박영호, 심재현, 김동은, 최정민, 박지훈, 김희찬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공정성 인식 영향 요인:

서울시를 중심으로 29

하석철

유아 장애인식개선 그림책의 장애공감 및 다양성 존중 요소 내용분석

이은지*, 조현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연구전임교수

A Content Analysis of Disability Empathy and Respect for Diversity Elements in Early Childhood Picture Books to Promote Disability Awareness

Lee, Eun-Ji*, Jo, Hyun-Geun**

*M. Ed., Graduate School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아의 장애 인식개선에 초점을 둔 그림책의 내용적·형식적 특성을 장애공감 및 다양성 존중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화 이후부터 2024년까지 출간된 그림책 20권을 선정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적 특성 분석 결과, 다수의 그림책은 장애를 인간 다양성의 한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제시하고 있었으며, 특히 장애 유아를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능동적 역할 모델(85.0%)로 묘사하며 긍정적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사람 중심 언어(80.0%)의 사용이 두드러져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언어적 기반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일부 도서에서는 여전히 장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전통적 의료 모델 기반의 부정적 표현(30.0%)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둘째, 형식적 특성 분석 결과,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쉬운 어휘와 안정된 서사 구조(85.0%)와 심리적 공감을 돕는 일인칭 화자 시점(70.0%)이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반면, 글과 그림의 유기적 조화(45.0%)와 삽화의 감정 표현 적절성(50.0%)은 전체 분석 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나 내용적 지향성에 비해 시각적 예술성을 통한 정서적 몰입 장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유아, 장애인식개선, 그림책, 내용 분석, 장애공감, 다양성 존중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effective methods to utilize picture books in early-childhood education settings by analyzing their content and formal characteristics from the perspectives of disability empathy and respect for diversity. Hence, 20 picture books published between 2016—the year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became mandatory—and 2024 were selected and subjected to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content characteristics, most picture books naturally presented disability as an aspect of human diversity, with emphasis on positive images by depict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s active role models (85.0%). The prominent use of “people-first language” (80.0%) further confirmed the strengthening of the linguistic foundation for promoting a culture of disability empathy. However, some books exhibited a mixture of negative expressions based on the conventional medical model (30.0%), which regards disability as a condition to be treated. Second, regarding formal characteristics, picture books primarily utilized easy vocabulary and stable narrative structures appropriate for children’s developmental levels (85.0%), along with a first-person narrator’s perspective (70.0%) to facilitate psychological empathy. Conversely, the “organic harmony of text and illustrations” (45.0%) and the “appropriateness of emotional expression in illustrations (50.0%) constituted the lowest percentages among all analyzed categories. This indicates that devices for emotional immersion through visual artistry are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with the thematic objectiv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serve as fundamental data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disability-awareness education in early-childhood settings.

Key words: young children, disability awareness, picture books, content analysis, disability empathy, respect for diversity

이 연구는 제 1저자의 2025년도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 제1저자(i0108ej@naver.com)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연구전임교수, 교신저자(hyungeunjo@daum.net)

투고일: 2025. 12. 04. 심사완료일: 2026. 01. 12. 게재확정일: 2026. 01. 2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기 장애 영유아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분리 교육에서 완전 통합교육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장애 유아와 비장애 유아의 통합교육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교육부, 2019; 권순우 외, 2023). 이러한 변화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도 적극 반영되어 장애 유아가 또래와 함께하는 일상적 통합 경험의 권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차별 없는 교육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2019).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실행은 단순히 물리적 프로그램과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교사, 부모, 그리고 통합학급의 주체인 유아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심리적 준비와 긍정적 태도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유수옥 외, 2002).

우리나라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제도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발전과 맥을 같이하며(최웅선, 2018), 2007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의무화를 시작으로 2016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교육의 범위가 유아기 교육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영유아기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법제처, 2016). 최근 통합교육의 질적 지향점으로 강조되는 ‘장애공감문화’는 장애 유아를 단순히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 그들의 감정과 요구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실천적 과정을 의미한다(교육부, 2018). 이에 교육부(2023)는 장애인식개선 활동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유치원을 포함한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을 연 2회 이상 법정 의무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아기는 사회정서 발달과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민감한 시기로 이 시기에 발달하는 공감 능력은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강조되었다(지성애, 장하나, 2015).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유아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이 다름을 수용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강조한다(교육부, 2019). 서울특별시교육청(2024)은 ‘2024 통합교육 업무 지원 한 권에 담은 통합교육 실행 도움 자료’를 통해 ‘모두를 위한 교육’과 ‘다양성 존중 교육’ 등의 포괄적 개념을 활용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되, ‘장애’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유아에게 또 다른 편견을 낳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방법으로는 다양한 매체와 자료의 활용이 효과적임이 밝혀졌으며(임효중, 김자경, 강혜진, 2022), 체험활동이나 장애 유아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경험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김숙경, 2013). 이와 관련하여 심향분과 성소영(2014)은 유아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을 확장하는 데 있어 그림책이 매우 효과적인 교육 매체라고 제안하였다.

유아기 그림책 활동은 유아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특히 언어 습득이 완성되지 않은 유아들에게 글과 그림이 공존하는 그림책을 통한 활동은 매우 유용한 학습 도구가 된다(김정원 외, 2008). 유아들은 그림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므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그림책 활동을 유아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룬다(임영심, 전순환, 2010; 권미은, 2013). 따라서 장애공감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유아들이 즐길 수 있으며 교육적인 의미를 가진 그림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림책은 텍스트와 이미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로(조명숙, 2017; 장범순, 2018) 유아의 인지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 도구이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유아기는 그림책을 통해 복잡한 개념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결과적으로 그림책은 유아에게 간접 경험을 제공하고 상상력, 언어능력, 사회성, 정서 발달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문선영, 유지안, 2021).

그림책을 활용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신창희, 2018; 박윤정, 신선경, 2023; 이상은, 2023; 김옥주, 방명애, 2024). 이상은(2023)의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그림책을 활용한 중재가 비장애 아동의 장애인식개선에 효과적이며, 특히 초등학생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경우 더 큰 효과가 있었다. 또한, 장

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에서도 프로그램 실시 후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차별과 다름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였음이 확인되었다(이현미, 강은주, 2023). 방명애와 최정희(2019)의 연구에서는 통합 학급에서 장애 공감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비장애 학생의 공감 능력과 장애 수용 태도가 향상되었다. 이수경과 박경빈(2020)은 그림책을 활용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유아의 장애 인식과 친사회적 행동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그림책이 유아들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인 매체로 활용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림책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묘사나 편견이 나타나기도 하며(심혜숙, 김호연, 2009), 기존의 장애인식개선교육 방식이 장애의 이질성만을 부각시켜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김혜민, 이병인, 김현숙, 2019). 따라서 장애공감교육을 위한 그림책 선정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그림책에 나타난 장애인 관련 내용, 등장인물의 특성, 상호작용 등을 분석하거나(유수옥, 2009; 김민화, 조영숙, 2012; 전유영, 이은영, 2012; 김숙현, 강종구, 2013; 정선희 외, 2017),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이수경, 박경빈, 2020). 그러나 ‘모두를 위한 교육’, ‘다양성 존중 교육’의 관점에서 장애를 부각시키지 않으면서도 인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림책 선정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 서사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매체이기에 유아의 인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유영과 이은영(2012)은 장애 관련 그림책 분석 시 편견 재생산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내용적 요소뿐 아니라 형식적 구성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박윤정과 신선경(2023)은 그림책을 통한 교육적 효과가 주제(내용)와 더불어 이야기 구조나 언어 수준(형식)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수경과 박경빈(2020)은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그림책의 형식적 특성이 내용적 메시지의 전달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 장애인식개선 그림책의 내용적·형식적 특성을 장애공감 및 다양성 존중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그림책 선정, 교육자료 개발, 프로그램 구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나아가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적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유아 장애인식개선 그림책의 내용적 특성은 장애공감 및 다양성 존중의 관점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유아 장애인식개선 그림책의 형식적 특성은 유아의 발달 적합성 및 정서적 몰입 측면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유아의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다양성 존중 인식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출판된 그림책이다.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석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출판연도, 소장기관, 주제 적합성, 대상 연령, 형식, 내용, 접근성의 7가지 선정 준거를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연도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판된 그림책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적·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 본격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한 시점 이후의 최신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변화가 실제 교육 자료에 미친 영향을 반영하기 위함이다(교육부, 2017; 법제처, 2016). 둘째, 소장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에서 공식적으로 소장 중인 도서로 한정하였다. 이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선별된 도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셋째, 주제 적합성 및 내용 측면에서는 장애공감문화 및 장애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서사를 지닌 도서를 선정하였다. 장애인의 삶, 감정, 요구를 유아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은 물론, 장애를 특별히 부각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포함한 그림책을 선정 범위에 포함하였다. 넷째, 대상 연령은 만 5세에서 7세 유아를 주 독자층으로 설정하였다. 유아들이 그림책 속 갈등 상황과 감정 변화에 쉽게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인지 발달 수준에 적합한 서사 구조와 표현 방식을 지닌 도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다섯째, 형식 및 접근성 측면에서는 책의 판형, 삽화 스타일 등 물리적 구성 요소가 유아의 흥미와 학습 효과를 유발하기에 적합한 단행본 그림책을 포함하였으며, 팜플렛이나 소책자 형태는 제외하였다. 또한 일반 대중이 시중에서 용이하게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도서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 결과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분석 대상 그림책 목록은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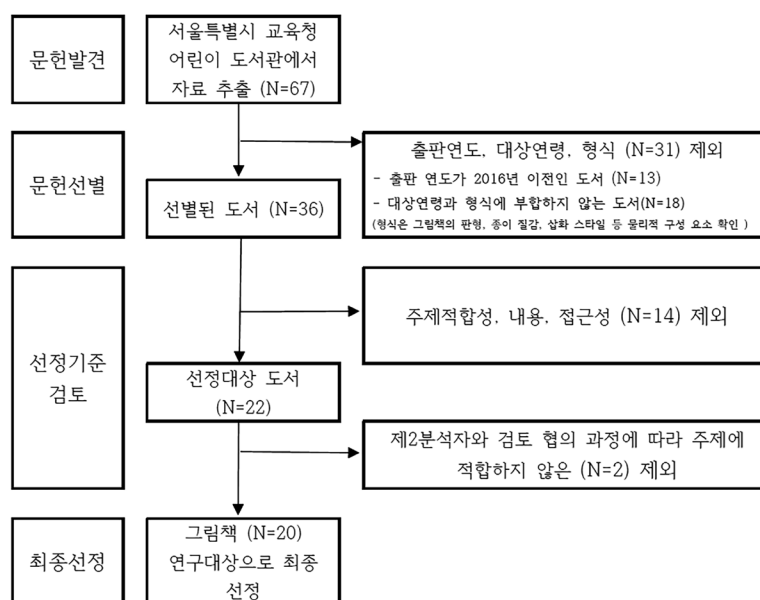
<표 1> 분석 대상 그림책 목록

번호	도서명	저자	출판년도	장애유형
1	너와 함께 걷고 달리고	김혜은, 전해숙	2024	지체장애
2	코코는 고구마 고구마해	전해숙	2023	발달장애
3	나는 안내견이야	표영민, 조원희	2022	시각장애
4	늘보 씨, 집을 나서다	김준철	2022	지체장애
5	오늘은 돈가스 카레라이스	오승민	2021	ADHD
6	오늘은 우리 집에 갈래?	전해숙	2020	발달장애
7	그래도 팬츠아 마을에서 온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안드레스 게레로	2023	발달장애
8*	내 친구 슈퍼 카를로: 시각장애를 가진 특별한 짝꿍	다니엘레 모바렐리, 리우나 비라르디	2022	시각장애
9	서툴고 어설피든 대단한 일꾼들	타야 미쓰히로	2022	발달장애
10	창밖으로 나갈 용기	픽닐 외즈코프, 제이훈 쉐	2022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11	우리 아빠는 흰지팡이 수호천사	곤살로 모우레	2021	시각장애
12	눈을 감아야 보이는 세상	로저 울모스	2021	시각장애
13	그냥 내 친구니까	플로랑스 지벨레-드 레스피네이, 브리지트 메르카디	2020	지체장애 발달장애
14	빨간 모자가 앞을 볼 수 없대	한쉬	2020	시각장애
15	수화로 시끌벅적 우쾌하게	라사 잔초스카이테	2019	청각장애
16	숲길 29에 찾아온 아기 금붕어	코세타 자노티, 루치아 스쿠데리	2019	지체장애 지적장애
17	귀 없는 그레요	스테판 세르방, 시모네 레아	2018	청각장애 지체장애
18	피카소도 나처럼 글자가 무서웠대	헝크 린스켄스	2018	학습장애
19	누나에겐 혼자만의 세상이 있어	마르코 베레토니 카라라, 치아라 카레르	2017	발달장애
20	눈을 감아 보렴!	빅토리아 페레스 에스 크리바, 클라우디아 라누치	2016	시각장애

* 8번 도서 출판사: 사파리, 이외 도서(1~7번, 9~20번) 출판사: 한울림스페셜.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및 선정 절차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석 대상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문헌발견 단계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 소장 도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장애 공감' 및 '장애인식'을 핵심 키워드로 검색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67편의 기초 자료를 1차적으로 수집하였다. 이후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설정한 7가지 선정 준거를 바탕으로 단계별 선별 과정을 거쳤다. 둘째, 문헌선별 단계에서는 출판 연도가 2016년 이전인 도서(13편)와 본 연구의 대상 연령 및 그림책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도서(18편) 등 총 31편을 제외하였다. 셋째, 선정 기준 검토 단계에서는 그림책의 서사가 '장애공감문화'와 '다양성 존중'이라는 본 연구의 핵심 관점과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주제 적합성, 내용, 접근성이 결여된 14편을 추가로 제외하여 22편의 예비 분석 대상을 추출하였다. 넷째, 최종 선정 단계에서는 분석의 엄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유아교육 전공 석사학위 과정생이자 5년의 유아교사 경력을 보유한 제2분석자와의 검토 협의 과정을 거쳐 연구의 분석 틀인 장애공감 및 다양성 존중 요소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2편을 제외하여 총 20권의 그림책을 최종 분석대상 그림책으로 확정하였다. 분석 대상 그림책의 구체적인 선정 및 정제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대상 그림책 선정 과정

3. 자료 분석

그림책은 '장애'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인물이 사회 속에서 인식되는 방식을 시각적·서사적으로 구현하는 효과적인 매체이며, 유아들에게 장애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관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교육적 매개체이다(김미정, 최은아, 2007). 본 연구는 유아기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그림책의 내용적·형식적 특성을 장애공감 및 다양성 존중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수옥(2006), 정선희 외(2017), 최유미와 정상우(2018)의 분석 지표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분석 도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유아교육 전공 석사학위 과정생이자 5년의 현장 경력을 보유한 제2분석자에게 문항 검토를 의뢰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구체적인 분석 영역은 연구문제의 구조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크게 두 범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상세한 분석 틀은 <표 2>와 같다.

〈표 2〉 장애 공감 및 다양성 존중 요소 분석 틀

분석 영역	분석 문항
내용적 특성	▶ 등장인물 및 장애 이미지 - 등장 인물 유형(사람, 동물 등) 및 장애 부각 여부 - 유아 흥미 유발 요소(줄거리, 인물관계, 주제, 감정) - 장애 이미지(긍정/부정) 및 역할 모델(능동/수동)
	▶ 편견 배제 및 인격적 존중 - 편견 및 고정관념(부정적 시선, 차별 요소, 왜곡된 묘사) - 정보 및 묘사의 사실성(사실적 정보, 현실적 표현) - 인격적 존중 및 상황에 대한 공감 표현
	▶ 언어 사용 및 다양성 인식 - 사람 중심 언어 사용(사람 우선 강조, 공감적 표현) - 장애의 차이 인식(장애를 사회적 다양성으로 수용)
형식적 특성	▶ 발달 적합성 및 서사 구조 - 어휘와 문장의 적합성(쉬운 어휘, 간결한 문장) - 이야기 구성의 안정성(시작-중간-끝, 일관성)
	▶ 정서적 몰입 및 시각적 조화 - 1인칭 화자 시점 활용(경험의 공유, 공감 유도) - 글과 그림의 유기적 조화(분위기 전달, 감정 표현)

첫째, 내용적 특성은 장애인에 대한 존중과 인간 다양성의 가치가 메시지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하위 범주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등장인물 및 장애 이미지(등장인물 유형 및 장애 부각 여부, 유아 흥미 유발 요소, 장애 이미지 및 역할 모델), ② 편견 배제 및 인격적 존중(편견과 고정관념, 묘사의 사실성, 장애인에 대한 존중), ③ 언어 사용 및 다양성 인식(사람 중심 언어 사용, 장애의 차이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형식적 특성은 그림책의 구성적 요소가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며 정서적 공감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하위 범주를 설정하였다. 이는 ① 발달 적합성 및 서사 구조(어휘와 문장의 적합성, 이야기 구성의 안정성), ② 정서적 몰입 및 시각적 조화(1인칭 화자의 시점 활용, 글과 그림의 유기적 조화)로 구성하였다.

4. 분석자 간 일치도

본 연구는 내용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석자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자 간 일치도(Inter-rater Reliability)를 산출하였다. 제2분석자는 연구자와의 객관적인 검토 협의를 위해 유아교육 전공 석사학위 과정생이자 5년의 유아교사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1인을 선정하였다. 신뢰도 검증 절차는 첫째, 분석을 시작하기 전 연구자와 제2분석자는 본 연구의 분석 틀인 장애공감 및 다양성 존중 요소 분석 틀을 공유하고, 각 항목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인 분석 예시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사전 훈련 과정을 거쳤다. 둘째, 전체 분석 대상 20권 중 약 20%에 해당하는 4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연구자와 제2분석자가 각각 독립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분석자 간 독립적인 분석 후 도출된 결과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대조 및 협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그림책의 텍스트와 삽화를 재검토하며 분석 준거에 따른 논리적 타당성을 논의하여 최종적인 일치를 유도하였다. 최종 분석자 간 신뢰도는 전체 평가 항목 수 대비 일치한 항목 수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산출 결과 90%의 일치도를 보여 분석 과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확보된 신뢰도를 바탕으로 나머지 분석 대상 도서에 대한 본 분석을 수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장애공감 및 다양성 존중 관점의 내용적 특성

1) 능동적 역할 모델 및 인간 다양성 표상

분석 대상 그림책의 등장인물 유형 및 장애 부각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대상인 장애인식개선 관련 그림책 20권의 등장인물 유형을 살펴본 결과, 사람이 13편(65.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동물이 등장하는 도서는 6편(30.0%)이었다. 기타 범주에 해당하는 1편(5.0%)은 그림책 『너와 함께 걷고 달리고』로, 운동화를 의인화한 캐릭터를 통해 서사를 전개하고 있었다. 장애의 부각 여부를 분석한 결과, 그림이나 글에서 장애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거나 강조한 도서는 9편(45.0%)으로 나타났으며, 장애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도서는 11편(55.0%)으로 분석되었다. 장애가 부각된 9권의 도서는 주로 장애를 가진 주인공의 일상과 분투를 서사의 중심 소재로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유아 대상 장애인식개선 도서가 장애를 ‘특별하고 분리된 상태’로 조명하기보다 보편적인 삶의 한 양상으로 다루려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장애가 비부각된 도서(55.0%)가 과반을 넘는다는 점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통해 장애공감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표 3> 등장인물의 유형 및 장애 부각 여부의 내용적 특성 (N=20)

등장인물의 유형 및 장애 부각 여부		빈도(%)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는가?	사람	13(65.0)
	동물	6(30.0)
	기타	1(5.0)
장애가 부각 되는가?	부각	9(45.0)
	비부각	11(55.0)

대표적인 사례인 『그래도 괜찮아 마을에서 온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의 경우, 특정 인물의 장애를 명시하기보다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니까요”라는 대사를 통해 인간의 불완전함과 서투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장애를 개별적인 결함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특성 중 하나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유아가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 교육적 장치로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니까요.”
(P7:6:3-5)

유아의 정서적 몰입과 교육적 효과를 결정하는 흥미 유발 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장애인식개선 관련 그림책의 흥미 유발 요소를 분석한 결과, ‘줄거리’가 16편(8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제와 메시지’ 15편(75.0%), ‘인물과 관계’ 14편(70.0%), ‘유아의 경험과의 연결성’ 12편(60.0%) 순으로 나타났으며, ‘갈등과 해결 과정’은 11편(55.0%), ‘감정 표현’은 9편(45.0%)의 분포를 보였다. 전체 분석 대상 중 8권의 그림책은 위 6가지 흥미

유발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수의 장애인식개선 그림책이 유아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흥미로운 사건 중심의 ‘즐거움’이나 우정, 성장과 같은 ‘보편적 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흥미 유발 요소의 내용적 특성 (N=20)

흥미 유발 요소		빈도(%)	
		○	×
주제와 메시지	이야기에서 전달하는 핵심 의미가 우정, 도전, 성장 평등과 같이 유아의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가 포함되었는가?	15(75.0)	5(25.0)
즐거움	이야기의 흐름과 전개 방식이 유아의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가?	16(80.0)	4(10.0)
인물과 관계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특징 및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 유아의 흥미를 유발하는가?	14(70.0)	6(30.0)
감정 표현	등장인물의 감정 변화와 유아의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가?	9(45.0)	11(55.0)
갈등과 해결 과정	문제 상황과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유아의 흥미를 유발하는가?	11(55.0)	9(45.0)
유아의 경험과의 연결성	유아들이 자신의 일상과 비교하며 공감할 수 있는가?	12(60.0)	8(40.0)

특히 6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코코는 고구마고구마해』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인공 코코와 두두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서사 구조를 통해 유아의 또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해당 도서는 고구마를 뽑는 과정에서의 소동과 미스터리한 상황 설정을 통해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고구마고구마해”와 같은 리듬감 있는 반복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유아의 언어적 흥미와 주의 집중을 효과적으로 유도한다. 이는 장애라는 소재가 주는 무거움을 상쇄하고 유아의 서사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장애 유아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를 지닌 인물이 작품 내에서 어떠한 이미지로 형상화되며, 어떠한 역할 모델을 수행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대상 그림책 20권 중 장애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시한 도서는 13편(65.0%)이었으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포함한 도서는 7편(35.0%)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역할 모델 측면에서는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능동적’ 유형이 17편(85.0%)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타인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동적’ 유형은 3편(15.0%)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출판되는 장애인식개선 그림책들이 장애인을 시혜나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역량 있는 주체로 묘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능동적 역할 모델’이 85.0%에 달한다는 점은 유아들에게 장애가 삶의 제약이 되기 보다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태도임을 교육적으로 전달하는 유의미한 지표로 해석된다.

〈표 5〉 장애에 대한 이미지 및 역할 모델의 내용적 특성 (N=20)

장애에 대한 이미지 및 역할 모델		빈도(%)
장애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	긍정적	13(65.0)
	부정적	7(35.0)
장애인에 대한 어떤 역할 모델을 제공하는가?	능동적	17(85.0)
	수동적	3(15.0)

장애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내 친구 슈퍼 카를로』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시각장애를 지닌 주인공 카를로를 ‘슈퍼 영웅’이나 “명탐정”으로 명명하며, 장애로 인해 강화된 다른 감각(촉각, 후각 등)을 특별한 능력으로 격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내 친구 카를로는 슈퍼 영웅이에요. 그래서 다들 슈퍼 카를로라고 불러요.
(P8:1:1-2)
내 친구 슈퍼 카를로는 명탐정이에요.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누구인지
척척 알아맞히거든요.
(P8:11:1-3)
내 친구 슈퍼 카를로는 슈퍼 코를 갖고 있어요! 냄새만으로도 길을
얼마든지 찾으니까요.”
(P8:15:1-2)

2) 편견 배제 및 서사 속 인격적 존중

분석 대상 그림책의 서사가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전체 20편 중 장애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담은 도서는 15편(75.0%)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한 분석 대상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포함한 도서는 6편(30.0%)이었으며, 차별적 요소나 왜곡된 묘사가 나타난 도서는 각각 4편(20.0%)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 권의 그림책 내에서 긍정적 시선과 부정적 요소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용 장애인식개선 그림책이 전반적으로는 장애공감과 다양성 존중이라는 긍정적인 주제를 지향하고 있으나 서사 전개 과정에서는 여전히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그림책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교육적이고 긍정적일 지라도 인물의 대사나 특정 상황 묘사에서 비장애인 중심의 편견이 투영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6> 장애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 배제의 내용적 특성 (N=20)

장애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의 배제		빈도(%)	
		○	×
긍정적 시선	독자가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가?	15(75.0)	5(25.0)
부정적 시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 사용하는가?	6(30.0)	14(70.0)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포함하는가?	4(20.0)	16(80.0)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묘사가 있는가?	4(20.0)	16(80.0)

실례로 그림책 『그냥 내 친구니까』의 경우, 장애를 가진 친구와의 우정을 다루는 긍정적인 맥락 속에서도 주변 인물의 입을 통해 “왜? 넌 아더가 이상해 보이지 않아? 말도 혼자 안 하고, 다리는 절뚝거리고, 옷도 혼자서 입지 못하잖아!”같은 대사가 등장한다. 이러한 진술은 서사 내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이상함’이나 ‘무능력’으로 규정하는 부정적 시선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결말에서 긍정적인 관계 맺기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과정 중에 노출되는 이러한 부정적 표현들은 유아 독자에게 의도치 않은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식개선 도서를 선정하고 활용할 때는 전체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서사 곳곳에 숨겨진 미세한 차별적 표현이나 왜곡된 이미지가 긍정적 주제와 어떻게 혼재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왜? 넌 아더가 이상해 보이지 않아?
말도 혼자 안하고, 다리는 절뚝거리고,
옷도 혼자서 입지 못하잖아!”
(P13:7:6-8)

장애에 대한 묘사와 정보의 사실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장애를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림책은 14편(70%), 비현실적으로 표현한 그림책은 6편(30%)으로 나타났다. 『너와 함께 걷고 달리고』의 주인공은 휠체어를 이용하면서도 달리거나 스케이트를 타는 등 활기찬 모습을 보이지만, 동시에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해 속상해하는 현실적인 고충도 함께 드러낸다. 이러한 현실적 사실성은 장애를 무조건적인 연민의 대상이나 환상적인 극복의 주인공으로 미화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실제적인 삶의 한 양상으로 이해하게 돕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 7> 장애에 대한 묘사와 정보의 사실성의 내용적 특성 (N=20)

장애에 대한 묘사와 정보의 사실성	빈도(%)	
장애에 대한 정보와 묘사가 사실적이며 장애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나 비현실적인 표현이 없는가?	현실적	14(70.0)
	비현실적	6(30.0)

장애인을 대하는 서사의 태도가 인격적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독자의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내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 결과, 장애인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보여주는 그림책은 11편(55.0%)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그림책은 9편(45.0%)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를 가진 인물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 독자가 정서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묘사된 도서는 14편(70.0%)이었고, 공감 요소가 부족한 도서는 6편(30.0%)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식개선 그림책이 독자의 정서적 공감을 유도하는 데에는 상당한 성과(70.0%)를 거두고 있으나 이를 인격적 존중의 단계까지 밀착되게 연결하는 데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8> 장애인에 대한 존중의 내용적 특성 (N=20)

장애인에 대한 존중	빈도(%)	
	○	×
장애인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가?(존중과 이해의 시선, 인격적 표현)	11(55.0)	9(45.0)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공감이 나타나는가?	14(70.0)	6(30.0)

보수적인 관점에서 공감을 불러오지 못한 30%의 도서들을 살펴보면, 장애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장애인을 주체적인 인격체가 아닌 단순한 ‘도움이 필요한 수혜 대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격적 존중이 우수하게 나타난 사례인 『서툴고 어설피쁜 대단한 일꾼들』은 장애공감교육의 중요한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작품은 특수학교 학생들의 특성에 맞춰 작업 방식을 개선하며 “그렇다면 사람을 일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일을 사람에 맞추어 볼까?”와 같은 대사를 통해 장애인의 한계를 수정하려는 의료적 모델에서 벗어나 각자의 강점을 존중하고 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회적 모델 기반의 존중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아 독자에게 장애가 고쳐야 할 불편함이 아니라 개별 인격체가 지닌 고유한 특성임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장애공감문화 형성을 뒷받침하는 교육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사람을 일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일을 사람에 맞추어 볼까?”
(P9:23:1-3)

3) 사람 중심 언어 사용 및 사회적 다양성 인식

그림책 서사 내에서 장애라는 진단명이나 상태보다 ‘사람’ 그 자체를 우선시하는 공감적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분석 결과, 장애보다 사람을 먼저 강조하는 언어를 사용한 그림책은 20편 중 16편(80.0%)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사람 중심의 언어를 통해 장애 유아를 별개의 집단으로 차별화하지 않고 독자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서술한 도서 역시 16편(80.0%)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여전히 4편(20.0%)의 도서에서는 사람보다 장애 특성을 우선시하거나 차별화된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의 장애인식개선 그림책이 ‘사람 중심 언어(People-First Language)’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장애를 지닌 인물을 결함이 있는 집단으로 범주화하기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친구’나 ‘어린이’라는 보편적 정체성 안에서 인식하도록 돕는 중요한 언어적 기제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표 9> ‘사람을 먼저 강조하는 언어 사용’의 내용적 특성 (N=20)

사람을 먼저 강조하는 언어 사용	빈도(%)	
	○	×
장애보다 사람중심의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가?	16(80.0)	4(20.0)
‘사람 중심’의 언어를 통해 장애를 차별화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가?	16(80.0)	4(20.0)

대표적인 사례인 그림책 『눈을 감아야 보이는 세상』은 시각적 결핍에 집중하는 대신 주인공이 감각하는 다채로운 소리와 향기를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독자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주인공이 느끼는 정서적 세계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장애를 특별한 ‘다름’이 아닌 개인이 지닌 고유한 감각적 특성으로 수용하게 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다만, 20%의 도서에서 나타난 한계점은 장애를 여전히 극복해야 할 문제나 명칭 중심으로 정의할 위험이 있으므로 유아 교육 현장에서는 도서의 문장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언어적 가치를 더욱 면밀히 선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를 극복이나 시혜의 대상이 아닌 자연스러운 사회적 다양성으로 수용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 결과, 장애를 차이로 인식하고 장애인을 수용하며 존중하는 시선으로 표현한 그림책은 15편(75.0%)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그림책은 5편(25.0%)이었다. 장애를 사회적 차별이나 불편한 요소가 아닌 자연스러운 사회적 다양성으로 다룬 도서는 13편(65.0%)이었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도서는 7편(35.0%)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식개선 그림책이 장애를 개별적인 ‘불행’이 아닌 사회를 구성하는 보편적인 ‘차이’로 정립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65%의 도서가 장애를 사회적 다양성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은 다양성 교육의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표 10> ‘장애를 차이로 인식하는 표현’의 내용적 특성 (N=20)

장애를 차이로 인식하는 표현	빈도(%)	
	○	×
장애를 차이로 인식하고 장애인을 수용하며 존중하는 시선으로 표현했는가?	15(75.0)	5(25.0)
장애를 사회적 차별이나 불편한 요소가 아닌, 자연스러운 사회적 다양성으로 다루고 있는가?	13(65.0)	7(35.0)

대표적인 사례인 『누나에겐 혼자만의 세상이 있어』에서 “돌맹이 두 개가, 개 두 마리가... 그리고 사람 둘이 똑같은 수 있을까?”라는 문장을 통해 장애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차이가 자연의 섭리와 같은 당연한 다양성임을 역설하고 있었다. 다만, 35%의 도서에서 사회적 다양성 인식이 부족하게 나타난 것은 여전히 장애를 사회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이질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존재함을 시사하므로 주의 깊은 비판적 읽기가 요구된다.



“돌맹이 두 개가, 개 두 마리가,
나뭇잎 두 장이,
그리고 사람 둘이 똑같을 수 있을까?”
(P19:24:3-8)

2. 발달 적합성 및 정서적 몰입 측면의 형식적 특성

1) 발달 적합성 및 서사 구조의 안정성

유아의 언어 발달 수준을 고려한 어휘와 문장의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분석 결과, 어린이의 수준에 맞게 이해하기 쉬운 어휘와 문장으로 구성된 그림책은 17편(85.0%)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가 서사를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문장이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표현된 그림책은 14편(70.0%)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 대상 그림책의 대다수(85%)가 유아의 인지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언어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아기는 어휘 습득 및 문장 이해력이 발달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쉬운 어휘의 선택은 장애라는 낯선 주제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교육적 장치가 될 수 있다. 다만, ‘어휘의 용이성(85.0%)’에 비해 ‘문장의 간결성 및 직관성(70.0%)’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식개선 도서 제작 시, 단어의 선택뿐만 아니라 유아의 집중력과 이해 속도를 고려한 문장 구조의 정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 ‘이해하기 쉬운 어휘와 문장’의 형식적 특성 (N=20)

이해하기 쉬운 어휘와 문장	빈도(%)	
	○	×
유아의 수준에 맞게 이해하기 쉬운 어휘와 문장으로 구성되었는가?	17(85.0)	3(15)
유아가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문장이 간결하고 직관적인가?	14(70)	6(30)

그림책의 이야기가 논리적 흐름을 유지하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서사 구조의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분석 결과, 그림책의 구조나 이야기 전개가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나타난 도서는 전체 20편 중 17편(85.0%)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이 명확하게 구분되며 서사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도서 역시 17편(85.0%)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 대상 그림책의 대다수가 유아의 인지 수준에서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용이한 표준적 서사 구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아기는 논리적 사고가 형성되는 시기로, ‘시작-중간-끝’의 명확한 구조는 이야기 속 장애 유아 캐릭터가 겪는 갈등과 해결 과정을 유아가 혼란 없이 수용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틀이 된다. 이처럼 구조적 일관성이 확보된 서사의 안정성은 유아가 작품의 주제에 더욱 집중하게 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육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 ‘안정된 구성’의 형식적 특성 (N=20)

안정된 구성	빈도(%)	
	○	×
그림책의 구조나 이야기 전개가 안정적이고 일관성이 있는가?	17 (85)	3 (15)
시작, 중간, 끝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17 (85)	3 (15)

2) 정서적 몰입 및 시각적 이해 지원

유아 독자가 그림책 속 인물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서사에 몰입하도록 돕는 일인칭 화자의 시점 활용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분석 결과, 일인칭 화자의 시점을 채택하여 등장인물의 경험을 독자가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서술된 그림책은 전체 20편 중 14편(70.0%)으로 나타났다. 반면, 3인칭 관찰자 시점 등을 사용하여 주인공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도서는 6편(30.0%)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수의 장애인식개선 그림책이 유아 독자의 정서적 공감 유도를 위해 전략적인 시점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인칭 화자 시점(70.0%)은 주인공의 내면 심리와 감각적 경험을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장애를 외부인의 시선에서 관찰하는 대상이 아닌 '나의 이야기' 혹은 '가까운 친구의 경험'으로 인식하게 하는 강력한 정서적 기제가 된다. 특히 유아기 발달 특성상 타인의 감정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공감을 형성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70%에 달하는 높은 일인칭 시점 활용도는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형식적 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3> '일인칭 화자의 시점'의 형식적 특성 (N=20)

일인칭 화자의 시점	빈도(%)	
	○	×
일인칭 화자의 시점에서 보여지는가?(인물의 경험을 독자가 체험하는 방식)	14 (70)	6 (30)

그림책의 예술적 완성도와 정서 전달력을 결정하는 글과 그림의 조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분석 결과, 글과 그림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인물, 배경, 분위기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그림책은 9편(45.0%)으로 나타났으며, 절반 이상인 11편(55.0%)은 시각적 서사의 결합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그림이 이야기의 분위기와 일치하며 등장인물의 감정을 적절히 나타내는 도서는 10편(50.0%)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전체 분석 항목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글과 그림의 유기적 조화가 45.0%에 머문다는 점은 많은 도서가 장애라는 주제 전달을 위한 '설명적 텍스트'에 치중함으로써 그림책 고유의 '시각적 서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감정 표현의 적절성이 50% 수준에 그친 점은 유아 독자가 주인공의 내면세계에 깊이 몰입하고 정서적으로 공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장애인식개선 그림책의 제작 및 선정 시에는 텍스트의 교육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글과 그림의 유기적인 조화와 예술적 표현력을 필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14> '글과 그림의 조화'의 형식적 특성 (N=20)

글과 그림의 조화	빈도(%)	
	○	×
글과 그림이 잘 결합되어 인물, 배경, 분위기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는가?	9 (45)	11 (55)
그림이 이야기의 분위기와 일치하며, 등장인물의 감정을 적절히 나타내는가?	10 (50)	10 (50)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 장애인식개선 그림책의 내용적·형식적 특성을 장애공감 및 다양성 존중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유아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대다수 도서에서 장애 유아를 능동적 주체로 묘사하며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지향하는 긍정적 변화가 확인되었으나 정서적 몰입을 뒷받침할 시각적 서사력의 부족과 잠재적 편견의 잔존이라는 한계가 동시에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몇 가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출간된 그림책들은 장애를 ‘결함’이나 ‘교정’의 대상이 아닌 ‘존재의 다양성’으로 수용하려는 질적 변화를 보였다. 분석 결과, 장애 유아를 능동적 역할 모델로 제시한 비율이 85.0%에 달하였고, 장애를 명시적으로 부각하지 않은 도서가 55.0%로 나타났다. 이는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구성원의 ‘심리적 준비’와 ‘긍정적 태도’가 교육 매체 내에 투영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코코는 고구마 고구마해』나 『내 친구 슈퍼 카를로』와 같이 장애를 고유한 개성이나 역량으로 승화시킨 서사 구조는 장애를 다양한 존재로 제시할 때 유아의 편견 감소에 기여한다는 전유영과 이은영(2012)의 연구와 그림책 중재가 유아의 장애인식 및 상호작용 인식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김인선과 노진아(2022)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된 ‘정서적 공감(70.0%)’과 ‘인격적 존중(55.0%)’ 사이의 유의미한 격차는 장애공감교육의 질적 지향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요구한다. 장애공감문화는 단순히 타인을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 그들의 요구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천적 과정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그러나 분석 결과, 유아 독자의 감정적 이입(70.0%)은 성공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이를 장애인의 주체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단계(55.0%)로 연결하는 서사적 완결성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는 여전히 45.0%의 도서에서 장애인을 보호가 필요한 ‘수혜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진정한 장애공감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서툰고 어설피른 대단한 일꾼들』과 같이 “사람을 일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일을 사람에게 맞추어 볼까?”와 같은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기반의 인격적 존중 서사가 보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김진우, 2007; 방명애, 최정희, 2019).

셋째, 긍정적인 주제 의식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의료 모델에 기반한 부정적 표현(30.0%)과 편견 요소가 혼재되어 나타난 양상은 편견 재생산의 우려를 현실적으로 입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냥 내 친구니까』에서 등장인물이 주인공의 신체적 특성을 “이상해 보이지 않아?”라고 규정하거나 자립 능력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사례는 장애를 개별적인 신체적·정신적 한계로만 국한하는 전통적 관점(김진우, 2007)이 여전히 서사 내부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각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여 사회적 환경이나 구조적 요인을 간과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안상권, 임미향, 강종구(2015)의 지적과 연결되며, ‘장애’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또 다른 편견을 낳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권고를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넷째, 형식적 특성 분석에서 나타난 가장 낮은 지표인 ‘글과 그림의 유기적 조화(45.0%)’는 그림책이 지닌 예술적 교육 매체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그림책은 텍스트와 이미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유아기 최적의 매체로 강조되었다(문선영, 유지안, 2021). 그러나 실제 분석 결과 대다수 도서가 정보 전달을 위한 ‘설명적 텍스트’에 치중하고 있었다. 전유영과 이은영(2012)은 화자의 시점과 감정 표현이 유아의 몰입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는데, 감정 표현의 적절성이 50.0% 수준에 머문다는 점은 유아가 장애 유아 캐릭터의 내면세계에 깊이 도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형식적 특성이 메시지 전달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수경과 박경빈(2020)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시각적 예술성을 통한 정서적 공명 장치의 강화가 시급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사람 중심 언어(People-First Language)’의 적극적 활용(80.0%)은 고무적이거나 서사의 초점이 여전히 외형과 반응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개선 과제라 할 수 있다. 장애 상태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표현은 유아가 장애인을 ‘우리과 같은 친구’라는 보편적 범주에서 수용하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이다(임효종 외, 2022). 그러나 많은 그림책이 장애 유아의 내면 심리보다는 주변인의 시선이나 외형적 특성 설명에 치중하고 있다는 전유영과 이은영(2012)의 지적은 본 연구에서도 유효하게 나타났다. 이수경과 박경빈(2020)이 보고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눈을 감아야 보이는 세상』과 같이 주인공의 고유한 감각적 세계를 세밀하게 묘사하는 공감 중심 내러티브와 상호작용적 서사가 더욱 정교하게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유아 장애인식개선 그림책 제작 및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용 그림책 제작 시 공감 중심 서사의 개발이 요구된다. 장애를 교훈적 시각이나 정보 전달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유아가 주인공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서사 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장애 관련 그림책 선정 기준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일부 그림책은 편견을 재생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기관과 공공도서관에서는 매체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감과 포용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 추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향후 연구에서는 유아의 실제 반응을 포함한 실증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이 20권으로 제한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폭넓은 분석과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결합한 분석 틀의 정립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유아용 그림책 제작 시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선 예술적·공감 중심 서사의 개발, 서사 내부의 미세한 편견을 필터링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서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과 유아의 실제 반응을 추적하는 실증적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16년 이후 출간된 최신 도서들을 통해 장애공감 및 다양성 존중의 양상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장의 장애공감문화 형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7).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교육부.
- 교육부(2018). 장애공감문화 형성을 위한 학교 현장 자료집. 교육부.
- 교육부(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교육부.
- 교육부(2023). 2023 특수교육운영계획. 교육부.
- 권미은(2013). 유아기 장애이해교육용 그림책 활용과 선정기준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유아특수교육연구*, 13(1), 1-23.
- 권순우, 김영익, 정은, 팽재숙(2023). 특수교육학개론(3판). 창지사.
- 김미정, 최은아(2007). 유아용 그림책에 나타난 장애인관 분석. *어린이미디어연구*, 6(1), 73-107.
- 김민화, 조영숙(2012). 유아용 그림책에 나타난 장애인관과 장애인식개선의 관련성 고찰. *장애아동인권연구*, 3(2), 1-17.
- 김숙경(2013).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마음읽기가 자폐성 장애 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현, 강종구(2013). 그림책들에 나타난 장애 특성 및 태도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13(2), 1-21.
- 김옥주, 방명애(2024). 장애공감 중재프로그램이 초등 비장애학생의 공감능력과 통합된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7(2), 21-44.
- 김인선, 노진아(2022). 그림책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이 일반유아의 장애 인식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논집*, 26(2), 111-133.
- 김정원, 서정숙, 김유정, 남규(2008).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교육이 유아의 그림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Human Ecology Research*, 46(9), 71-85.
- 김진우(2007).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의 의의와 한국사회에의 함의. *한국장애인복지학*, 6, 183-209.
- 김혜민, 이병인, 김현숙(2019). 유치원 통합학급에서의 인성동화 소집단 협동 활동이 일반유아의 장애유아에 대한 인식 및 장애포대 수용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9(1), 119-145.
- 문선영, 유지안(2021). 레미쿠르종 그림책에 나타난 유아 인성 교육 내용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8), 51-66.
- 박윤정, 신선경(2023).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비장애 유아 및 학생 대상 그림책 활용 국내 중재연구 동향 분석. *통합교육연구*, 18(1), 59-88.
- 방명애, 최정희(2019). 초등 통합학급의 장애공감 활동프로그램이 비장애학생의 공감능력과 장애 수용태도 및 지적장애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논총*, 35(3), 45-68.

- 서울특별시교육청(2024). 통합교육 업무 지원 한 권에 담은 통합 교육 실행 도움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 신창희(2018). 장애이해 관련 동화 들려주기 활동이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일반 또래 유아의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향분, 성소영(2014). 한국그림책을 통한 유아들의 문화 읽기 과정 탐색. 유아교육연구, 34(5), 275-301.
- 심혜숙, 김호연(2009). 유아 도서에 나타난 장애 관련 내용 분석. 특수교육연구, 16(1), 223-245.
- 안상권, 임미향, 강종구(2015). 장애학 관점을 통한 장애부모참여에 대한 고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2), 169-186.
- 유수옥(2006). 장애 이해에 적합한 장애주제 그림책 선정에 관한 기초 연구. 통합교육연구, 1(2), 75-94.
- 유수옥(2009).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에 나타난 장애가 있는 등장인물과 다른 등장인물과의 상호작용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3), 151-170.
- 유수옥, 박현주, 박랑규, 강우선(2002). 장애유아 통합교육의 성공적 실천의 방해요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2(2), 111-132.
- 이상은(2023). 아동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그림책 중재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장애의 재해석, 4(1), 67-94.
- 이수경, 박경빈(2020). 그림책 활용 장애인식 개선 교육 활동이 유아의 장애인식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 연구, 25(6), 81-98.
- 이현미, 강은주(2023). 통합반 비장애아의 장애인식 변화를 위한 그림책 독서치료 실행연구. 독서치료연구, 15(3), 53-87.
- 임영심, 전순환(2010). 유아교육기관-지역의 공공도서관-가정의 순환적 그림책읽기 활동이 유아의 읽기태도와 이야기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5(3), 313-332.
- 임효종, 김자경, 강혜진(2022). 장애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 활동이 비장애유아의 장애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24(2), 53-73.
- 장범순(2018). 어린이 그림책 시각 서사에 관한 연구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19(55), 89-99.
- 법제처(2016).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일부개정.].
- 전유영, 이은영(2012). 유아를 위한 장애 관련 그림책에 포함된 장애에 대한 편견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3(1), 81-106.
- 정선희, 김금희, 김세희, 유정아, 박선희(2017). 장애 관련 우수 그림책의 특성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1), 121-142.
- 조명숙(2017). 그림책 텍스트의 구조적 관계 분석 및 유아 반응 탐색.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지성애, 정하나(2015). 유아 공감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태. 유아교육연구, 35(3), 101-126.
- 최웅선(2018). 장애 인식개선 교육제도의 법률 제·개정 경과 및 법적 개선방안-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사회법연구, 34, 237-269.
- 최유미, 정상우(2018). 유아 다문화교육을 위한 그림책 선정 기준과 내용 분석: 누리과정(교사용 지도서) 추천도서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1), 625-648.

예비 사회복지사의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건희*, 이건도, 최규갑, 박영호, 심재현, 김동은, 최정민, 박지훈, 김희찬
한경국립대학교 복지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학부생

Pre-service Social Workers' Perceptions and Demand for Agro-Healing

Geon-hee Lee*, Geon-do Lee, Gyu-Gab Choi, Young-Ho Park, Jae-Hyun Shim,
Dong-Eun Kim, Jeong-Min Choi, Ji-Hoon Park, Hee-Chan Kim

University Student, Hankyung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예비 사회복지사들의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유농업의 사회복지적 활용 가능성과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및 자격증 취득 예정자 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를 활용하여 t-검정 및 다중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예비 사회복지사들은 치유농업의 기대효과를 전반적으로 긍정 인식했으며, '치유농업의 기대효과'가 필요성 인식에 가장 강력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치유농업 경험이 있는 집단은 미경험 집단보다 필요성을 유의하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치유농업과 사회복지 간 연계의 어려운 점으로 '치유 농장까지의 먼 거리'를 꼽았으며, 운영 장소로 '도시 근교형 농장'을 선호했다. 이러한 탐색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복지 현장에서 치유농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응답자들이 가장 크게 인식한 먼 거리와 전문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정규 교육 과정에 치유농업 현장 실습 및 이론 교육을 포함하고, 유휴 부지와 복지관 옥상을 활용한 도시형 치유농장 조성을 장려할 수 있다.

주제어: 치유농업, 예비 사회복지사, 인식, 요구도, 사회복지 실천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pre-service social workers' perceptions and demands regarding agro-healing, followed by its potential for social-welfare utilization to propose strategic application measures. Hence,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109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ork or intending to acquir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Statistical analyses, including t-tes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6.0.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benefits expected from agro-healing are perceived well by prospective social workers. The "expected benefits of agro-healing" was confirmed as the strongest positive factor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its necessity. Specifically, the group with prior experience in agro-healing perceived its necessity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inexperienced group, thus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conviction through practical experience. Respondents identified the most significant difficulty in correlating agro-healing with social welfare as the "long distance to the healing farm," and they favored an "urban-vicinity farm" model for its operation location. These exploratory findings indicate that the main perceived limitations—distance and insufficient experts—should be addressed to enhance the utility of agro-healing in future social-work practice. The solutions may include incorporating agro-healing field placements and theoretical education into the regular social-work curriculum, as well as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urban-model healing farms using unused land and welfare-center rooftops.

Key words: agro-healing, pre-service social worker, perception, demand, social-welfare practice

* 한경국립대학교 복지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신저자(gunhee010209@gmail.com)

I. 서론

1. 연구 배경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주변 환경을 둘러보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다. 신도시 계획이 3기 신도시까지 확정되어 도로 근처에서 많은 아파트 건설 현장을 볼 수 있다. 아파트 단지과 그 주변에 조성된 생활권 녹지는 거주자에게 시각적 쾌적함과 편리함을 제공한다. 하지만 현대인이 자연과 실질적으로 교감하며 정서적 활력을 얻기에는 물리적·기능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은 모든 세대에 걸쳐 자연과의 교감 부족을 야기한다. 이는 미국의 저널리스트 리처드 루브(Richard Louv)가 언급한 자연결핍장애(Nature Deficit Disorder)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연결핍장애는 공식적인 의학적 진단명은 아니다. 하지만 자연과의 단절이 스트레스, 우울, 불안감 등을 증가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등 사회·심리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Louv, 2005). 특히 아동·청소년 시기의 자연 체험 부족은 전인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연체험 활동은 유아의 사회·정서적 성장에 필수적이다(유지숙, 2012).

이러한 자연과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지 공간의 심리적 회복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한성(2025)에 따르면 숲길을 걷는 활동은 도심 산책에 비해 인지적 잠재력을 회복시키는 주의력 회복 이론(Attention Restoration Theory)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자연 속에서의 신체 활동인 녹색 운동(green exercise)은 실내 운동보다 기분 전환과 자존감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Hu et al., 2025). 거주 환경 인근의 녹지 공간 노출은 우울증 및 불안장애 발병 위험을 낮춘다. 또한 어린 시절의 풍부한 녹지 노출은 성인기 정신 질환 위험을 최대 55%까지 낮춘다는 메타 분석 결과(Engemann et al., 2019; Zhang et al., 2024)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가 왜 자연과의 연결고리를 회복해야 하는지 그 필연성을 증명한다. 그러나 단순한 공간적 배치를 넘어 도시화의 맹점을 극복하고 자연과의 실질적인 결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능동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 핵심 방안으로 치유농업이 부상하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매개로 생명체를 직접 가꾸고 수확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는 수동적인 조경 감상과 달리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성취감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목적 지향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사회복지적 가치를 지닌다(농촌진흥청, n.d.-b).

국내 치유농업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유의미한 복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아동의 경우 치료도움미션이나 농업 자원을 활용한 중재가 자아존중감 형성과 또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강원국, 김옥진, 2021). 또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는 현대인의 스트레스 지수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홍인경 외, 2024).

이처럼 치유농업은 현대 사회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복지 자원이다. 하지만 국내 치유농업은 여전히 일회성 체험이나 농업 기술적 접근에 편중되어 지속가능한 서비스로 정착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의 주요 원인은 치유농업의 농업 기술 영역과 사회복지의 사례관리 영역이 분절되어 효과적인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데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자원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주체이다. 특히 예비 사회복지사는 미래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새로운 복지 기술을 도입하고 확산시킬 주역이다. 이들이 학위 과정 중 형성한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향후 실천 현장에서의 서비스 도입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미래의 의사결정권자인 이들의 인식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치유농업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예비 사회복지사의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사회복지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예비 사회복지사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치유농업의 사회복지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치유농업을 사회복지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치유농업의 개념, 정책, 국내외 사례 분석을 포함한다. 핵심적인 분석은 치유농업의 사회복지적 활용 가능성과 서비스 연계 방안에 중점을 둔다. 특히 농업 기술이나 프로그램의 임상적 효과 자체보다 사회복지 영역과의 연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연구의 핵심 분석 대상은 사회복지학을 전공 중인 예비 사회복지사로 한정하여 이들의 인식과 요구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치유농업의 개념 및 특성

치유농업의 공식적인 정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치유농업을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규정한다(농촌진흥청, 2024). 이 정의는 치유농업을 단순한 치료 활동이 아닌 국가적 목표를 추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대구한 의대학교 평생교육원, n.d.). 한국에서의 논의는 1980년대에 시작되어 1990년대 후반 원예치료 등의 활동으로 활발해졌다. 그러나 초기에는 각 활동이 분절되어 종합적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전환점은 2013년 농촌진흥청이 용어를 정의하고 통합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2021년 치유농업법 시행의 직접적인 토대가 되었다(김주희, 2021).

치유농업은 원예치료보다 개념적으로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원예치료는 식물을 대상으로 사회적·심리적 적응력을 기르는 활동을 의미한다. 반면 치유농업은 동물, 경관, 음식 등 농촌의 모든 자원을 활용한다(농촌진흥청, n.d.-a).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치유농업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이용자의 주체적 참여를 핵심 특성으로 한다. 이용자는 직접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높은 성취감과 자존감을 경험한다. 이는 이용자를 능동적 변화의 주체로 보는 사회복지적 가치와 일치한다. 특히 치유농업은 복지관 옥상 등을 활용한 도시형 모델로도 확장되고 있다(농촌진흥청, n.d.-a).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인식(Perception)은 정보를 선택하고 조직하여 해석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전문가의 긍정적 인식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의사결정의 핵심 선행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예비 사회복지사가 지각하는 치유농업의 기대효과는 서비스의 유익성에 대한 신념을 형성한다. 이러한 신념은 치유농업 실천이 필요하다는 필요성 인식으로 직접 연결된다. 반면 연계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필요성 지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적 흐름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근거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이론은 개인의 태도와 인지된 통제감이 행동 의도 및 필요성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치유농업의 기대효과와 연계 어려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는 회귀분석 모형은 이론적·경험적 타당성을 갖는다.

2. 국내외 동향

치유농업이 사회복지적 개입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효과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최근 홍인경 외(2024)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종합한 메타분석을 통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지닌다는 점을 밝혔다.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과 노인의 우울감 감소 등 심리적 효과 검증에 집중되었다(강원국, 김옥진, 2021; 이수정, 2021).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사회성 증진이나 치매 노인의 인지 기능 유지 등 구체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표적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 현장은 이미 치유농업의 중요한 실천 영역이지만, 국내에서는 농장 운영자의 수익성 문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연계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김성용, 은석, 김도윤, 2023).

반면 해외에서는 농업과 복지를 연계한 제도적 모델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왔다. 네덜란드는 치유기관 소속 농장과 보건기관 협력 농장 등 다양한 유형을 바탕으로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치유농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김나영, 2023). 영국은 치유농업을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 체계에 편입하여 공공 보건 영역에서의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노르웨이는 중앙정부 협력을 통해 치유농업의 재활 효과를 무작위대조연구(RCT)로 검증하여 자존감과 사회적 기능 향상을 확인하였다(Murray et al., 2019; Pedersen et al., 2015). 또한 농장형 주간돌봄(FDC)이 일반 주간보호센터보다 치매 환자의 삶의 질과 사회적 참여에서 우수하다는 점도 다수의 연구에서 입증되었다(Ellingsen-Dalskau, de Boer, & Pedersen, 2021; Finnanger Garshol, Ellingsen-Dalskau, & Pedersen, 2020; Ibsen et al., 2020). 이러한 국내외 연구 동향은 국내 치유농업이 효과성 검증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사회복지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미래 사회복지 현장의 주역이 될 예비 사회복지사의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 구축과 국내외 사례 분석을 위해 수행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 정책 보고서, 관련 KCI 등재 학술지 논문 등 전문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 및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2025년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109명을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하여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모집 과정은 본교 사회복지학부생을 포함하여 연구팀원의 네트워크를 통해 타 대학교의 사회복지학부생과 사회복지대학원생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응답자 집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 플랫폼인 구글 폼(Google Forms)을 활용한 자가기입식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예비 사회복지사의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었으며, 두 번째 파트의 주요 인식 항목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기대효과 척도는 클라이언트에게 미칠 수 있는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인지적 건강 및 책임감·성취감 등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대효과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해당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는 .930으로 높게 나타났다. 치유농업과 사회복지 간 연계의 어려움 척도는 정보 부족, 비용 부담, 접근성, 전문가 부족, 날씨 영향 등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지수인 Cronbach's α 값은 .809로 양호하게 확인되었다. 필요성 척도는 "치유농업이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

시킴을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또한 세 번째 파트에서는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형태와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 분야를 질문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수집된 설문 데이터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SPSS 26.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선호 프로그램 형태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치유농업의 기대효과, 연계의 어려움, 필요성 인식 등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측정 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기술통계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치유농업 참여 경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 참여 경험 유무, 학년, 관심 분야 등 집단 간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예비 사회복지사의 치유농업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에 앞서 공선성 통계량(VIF) 확인을 통해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표 1〉 변수 구성

변수	구분	문항 수
종속변수	치유농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	1
	치유농업의 기대효과 종합 지표	5
	치유농업 연계 어려움 종합 지표	5
독립변수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 경험	1
	응답자의 사회복지 관심 분야	1
	치유농업을 활용 가능한 사회복지 분야	1
통제변수	성별	1
	학년	1

IV.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이 60명(55.0%), 남성이 49명(45.0%)으로 여성이 다소 우세한 구성을 보인다. 이러한 성비는 사회과학,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학문적, 직업적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경향과 일치한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사회복지 현장에 진출할 인력의 특성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연구 결과의 현장 적실성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년 분포에서는 4학년이 44명(40.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3학년이 27명(24.8%)으로 그 뒤를 잇는다. 반면, 1학년은 22명(20.2%), 2학년은 16명(14.7%)에 그친다. 단순히 고학년의 비율이 높다는 표면적 사실을 넘어, 3학년과 4학년을 합산하면 전체 응답자의 65.2%(71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형성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본 연구의 응답자 집단이 단순한 학부생 집단이 아니라, 학업을 마무리하고 전문직으로의 전환을 앞둔 예비 전문가 집단의 성격을 띠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자가 관심 있어 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노인복지가 27명(24.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청소년복지 25명(22.9%), 장애인복지 21명(19.3%), 지역사회복지 18명(16.5%), 의료·정신건강 사회복지 17명(15.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노인복지 및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의료·정신건강 및 지역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은 다소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이 추구하는 일상생활 환경 및 성향

에 대한 분석은 이 집단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분석 결과, 도시 중심 생활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63명(57.8%)으로 과반을 넘었으며, 중간 정도가 37명(33.9%)으로 뒤를 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자연 친화적 생활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단 9명(8.3%)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치유농업과 같이 자연 친화적 생활이 중요한 영역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여전히 도시 중심의 생활 환경에 익숙함을 시사한다.

2. 치유농업의 기대효과

〈표 3〉은 치유농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7점 리커트 척도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N=109). 먼저 기대효과 영역에서, 신체활동량 증가 등 신체적 건강 도움(M=5.8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청소년의 책임감과 성취감 향상(M=5.67), 인지 기능 향상 등 인지 건강 도움(M=5.64), 스트레스 감소 등 정신적 건강 도움(M=5.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치유농업이 정신적·신체적·인지적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척도 간의 평균 수치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항목별 평균 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5개 문항을 통합하여 치유농업의 기대효과 종합 지표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표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09			
구분	분류	명	%
성별	남성	49	45.0
	여성	60	55.0
학년	1학년	22	20.2
	2학년	16	14.7
	3학년	27	24.8
	4학년	44	40.4
관심있는 사회복지 실천 분야	노인복지	27	24.8
	장애인복지	21	19.3
	의료·정신건강 사회복지	17	15.6
	지역사회 복지	18	16.5
	아동·청소년 복지	25	22.9
	기타	1	0.9
일상생활 환경 및 성향	도시 중심 생활	63	57.8
	중간 정도	37	33.9
	자연 친화적 생활	9	8.3

〈표 3〉 치유농업의 기대효과

n=109			
구분	평균	표준편차	
스트레스 감소 등 정신적 건강 도움	5.57	1.250	
아동·청소년의 책임감과 성취감 향상	5.67	1.284	
대인관계 향상 등 사회적 건강 도움	5.38	1.380	
신체활동량 증가 등 신체적 건강 도움	5.81	1.236	
인지 기능 향상 등 인지 건강 도움	5.64	1.316	
치유농업의 기대효과 종합 지표	5.61	.157	

그 결과, 기대효과 평균은 $M=5.61$, $SD=.157$ 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치유농업의 기대 효과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기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는 치유농업 기대효과를 측정된 문항들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93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내적 일치도를 보이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가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치유농업 기대효과를 하나의 종합 지표로 구성하여, 치유농업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명칭은 치유농업의 종합 기대효과 지표로 하고 본 연구에서 정의한 치유농업의 기대효과 종합 지표는 기존의 5가지 기대효과를 통합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표 4〉 치유농업 기대효과들의 내적 일치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스트레스 감소 등 정신적 건강 도움	5.57	1.250	.909
아동·청소년의 책임감과 성취감 향상	5.67	1.284	.922
대인관계 향상 등 사회적 건강 도움	5.38	1.380	.913
신체 활동량 증가 등 신체적 건강 도움	5.81	1.236	.915
인지기능 향상 등 인지 건강 도움	5.64	1.316	.911
Cronbach's α			.930

n=109

3. 치유농업과 사회복지 간 연계의 어려움

치유농업과 사회복지 간 연계의 어려움 영역의 분석 결과,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해당 항목을 실제 한계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치유 농장까지의 먼 거리($M=5.67$)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여, 접근성 문제가 치유농업 참여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 운영·기획 전문가 부족($M=5.10$), 날씨 등으로 인한 운영의 불확실성($M=5.20$)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 전문 인력 및 안정적인 운영 기반의 부족이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반면, 신뢰할 만한 프로그램이나 정보 부족($M=4.82$)과 프로그램 참가 비용에 대한 부담($M=4.72$)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여 일정 수준의 인식된 한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도 기대효과 종합 지표와 동일하게, 연계의 어려움 종합 지표를 조작적 정의하여 $M=5.10$, $SD=.373$ 으로 도출하였다.

〈표 5〉 치유농업과 사회복지 간 연계의 어려움

구분	평균	표준편차
신뢰할 만한 프로그램이나 정보 부족	4.82	1.369
프로그램 참가 비용에 대한 부담	4.72	1.622
치유 농장까지의 먼 거리	5.67	1.401
프로그램을 운영, 기획할 전문가 부족	5.10	1.575
날씨 등으로 인한 운영의 불확실성	5.20	1.426
치유농업 연계 어려움 종합 지표	5.10	.373

n=109

분석 결과, 치유농업과 사회복지 간 연계의 어려움 척도의 전체 Cronbach's α 값은 0.809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0.7 이상이면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하며, 0.8 이상은 좋은 신뢰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치유농업 연계 어려움 척도의 5개 항목은 양호한 수준의 내적 일치도를 보였으며, 측정하고자 하는 연계의 어려움이라는 개념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표 6〉 치유농업 연계 어려움의 내적 일치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신뢰할 만한 프로그램이나 정보 부족	4.82	1.369	.776
프로그램 참가 비용에 대한 부담	4.72	1.622	.790
치유 농장까지의 먼 거리	5.67	1.401	.756
프로그램을 운영, 기획할 전문가 부족	5.10	1.575	.761
날씨 등으로 인한 운영의 불확실성	5.20	1.426	.762
Cronbach's α			.809

n=109

4. 사회복지 현장에서 치유농업의 필요성

치유농업이 사회복지 현장에 필요한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평균 5.44점, 표준편차는 1.265가 나왔다. 5.44점은 약간 그렇다에서 그렇다 사이의 결과로, 응답자들이 치유농업의 사회복지 현장 적용에 대해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7〉 치유농업의 필요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회복지 현장에서 치유농업의 필요성 인식	5.44	1.265

n=109

3. 연구가설 검증

1) 치유농업 프로그램 경험 유무에 따른 인식 차이 분석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에 따른 치유농업의 기대효과 종합 지표, 연계 어려움 종합 지표, 필요성 인식 평균 변수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치유농업의 기대효과 종합 지표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M=5.70)이 경험이 없는 집단(M=5.5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758, p>.05$). 이는 치유농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은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치유농업의 연계 어려움 종합 지표는 경험이 있는 집단(M=4.09)이 경험이 없는 집단(M = 5.27)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748, p>.05$). 다만,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연계의 어려움을 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실제 참여를 통해 프로그램의 긍정적 측면을 체감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인식 평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831, p<.01$).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M=5.79)이 경험이 없는 집단(M=5.12)보다 유의하게 높아, 실제로 치유농업을 경험한 응답자들이 치유농업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경험 유무에 따른 필요성 인식 차이에 대한 본 연구의 가설은 유의하게 지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8〉 치유농업 프로그램 경험 유무에 따른 인식 차이

n=109

구분	경험 있다(n=52)		경험 없다(n=57)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치유농업의 기대효과 종합 지표	5.70	1.07	5.53	1.21	.758(ns)
치유농업의 연계 어려움 종합 지표	4.09	1.19	5.27	1.00	-1.748(ns)
필요성 인식 평균	5.79	1.07	5.12	1.35	2.831**

*p<.05, **p<.01, ns(not significant)

2) 치유농업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분석 결과, 모든 변수의 VIF 값이 5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장 높은 VIF(3.523)도 기준치(5 또는 10)에 미치지 않아,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회귀분석 결과를 왜곡할 수준은 아니다. 즉, 회귀분석 결과는 다중공선성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각 변수의 효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9〉 여러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검정

n=109

구분	공차	VIF	
치유농업 프로그램 경험	.874	1.144	
성별(ref.=남성)	.861	1.162	
관심 분야	장애인(ref.=노인)	.516	1.938
	의료·정신건강(ref.=노인)	.511	1.956
	지역사회(ref.=노인)	.665	1.504
	아동·청소년(ref.=노인)	.655	1.527
	아동·청소년(ref.=장애인)	.312	3.204
활용 가능 분야	노인(ref.=장애인)	.303	3.303
	의료·정신건강(ref.=장애인)	.284	3.523
	지역사회(ref.=장애인)	.532	1.880

예비 사회복지사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경험 유무가 치유농업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치유농업 프로그램 경험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으며, 경험 있음=0, 경험 없음=1의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종속변수인 치유농업 필요성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21.3%로 나타났고($R^2=0.213$),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2.656$, $p<.01$). 치유농업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경우 필요성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나, 실제 프로그램 참여 경험($\beta=-0.229$, $p<.05$)이 치유농업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더미 코딩 기준을 고려하면, 치유농업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비해 치유농업 필요성 인식 점수가 약 0.577점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즉,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경험한 응답자일수록 그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심 및 활동 가능 분야에 대한 더미변수 생성 시 빈도분석을 통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범주를 기준군(ref.)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해석의 명확성과 비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다. 다만 관심 분야 변수에서는 노인, 활동 가능 분야 변수에서는 장애인이 참조군으로 설정되어 기준군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석 과정에서 참조군을 명확히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관심 분야 중 아동·청소년 분야($\beta=-0.220$, $p<.05$)를 선택한 경우, 노인 분야를 선택한 경우보다 필요성 인식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 아동·청소년 분야를 선택한 응답자들이 치유농업의 가치나 적용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활용 가능 분야에서 의료·정신건강, 노인,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등으로 폭넓게 인식한 경우, 모두 치유농업의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나 사회복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치유농업의 활용 가능성을 인지할수록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강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기준(ref)으로 할 때, 아동·청소년($\beta=.360, p<.05$), 노인($\beta=.370, p<.05$), 의료·정신건강($\beta=.419, p<.05$), 지역사회($\beta=.318, p<.05$)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전체 모형은 약 21.3%의 설명력을 가지며($F=2.250, p<.01$), 이는 사회복지사의 경험과 활용 가능 분야 영역이 치유농업 필요성 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10> 예비 사회복지사의 치유농업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09

구분	B	S.E.	β	
(상수)	5.202	.487		
치유농업 프로그램 경험				
성별(ref.=남성)	-.577	.242	-.229*	
	-.390	.245	-.154	
관심 분야	장애인(ref.=노인)	.475	.398	.149
	의료·정신건강(ref.=노인)	-.708	.435	-.204
	지역사회(ref.=노인)	-.574	.373	-.169
	아동·청소년(ref.=노인)	-.660	.332	-.220*
활용 가능 분야	아동·청소년(ref.=장애인)	1.027	.457	.360*
	노인(ref.=장애인)	1.006	.443	.370*
	의료·정신건강(ref.=장애인)	1.275	.511	.419*
	지역사회(ref.=장애인)	1.538	.594	.318*
R^2		.213		
F		2.656**		

* $p<.05$, ** $p<.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치유농업의 사회복지적 활용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현대 한국 사회의 가속화된 도시화와 자연 단절 현상을 뚜렷하게 반영한다. 응답자들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운영 장소로 도시 근교형 농장(45.0%)이나 도심 속 도시형 농장을 가장 선호한 반면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갖춘 농촌 지역은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응답자의 과반수가 도시 중심 생활을 지향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신도시 및 아파트 중심의 주거 환경이 미래 전문가들의 인식에 깊이 투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예비 사회복지사들은 치유농업이 지닌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장거리 이동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결국 치유농업 서비스가 이용자의 실제 생활 환경 내로 접근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본 연구의 가설인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일수록 그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할 것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되었다. 실제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M=5.79$)이 미경험 집단보다 필요성을 유의하게 높게 인식하였다는 점은 치유농업의 필요성이 단순한 이론적 지식보다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각인됨을 시사한다. 또한 분석 결과 치유농업의 기대효과는 필요성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이러한 접근성 한계와 전문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희 부지나 복지관 옥상을 활용한 도시형 치유농장 조성

을 정책적으로 적극 장려해야 한다. 생활권 내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설 기준과 운영 전문가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학과의 정규 교과과정에 치유농업 현장 실습 및 이론 교육을 선택 과목으로 도입하여 예비 전문가들이 졸업 전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복지사 치유농업 체험 우수처 사업을 신설하고 지원함으로써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기회 확대는 미래 복지 인력의 전문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활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의료 및 정신건강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치유농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특정 대학의 학생들로 한정하였다는 점과 도시 거주자 중심의 표본 구성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전국의 사회복지사 집단이나 농촌 지역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을 전국 단위로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향후 농촌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적 배경의 예비 전문가와 현업 사회복지사를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여 지역 간 인식 차이와 실천적 활용 가능성의 변화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원국, 김옥진(2021). 치료도우미견을 활용한 동물매개치료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6), 327-335.
- 김나영(2023). 국가별 치유농업 정책 분석을 통한 한국식 치유농업의 발전 전략 연구. 신라대학교.
- 김성용, 은석, 김도윤(2023. 10. 20.). 치유농업과 사회서비스: 정신건강 및 아동/청소년. 한국사회복지학회 2023년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제주.
- 김주희(2021. 4월). 자연의 흐름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다, 우리 치유농업. *그린매거진*.
- 농촌진흥청(202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91호].
- 농촌진흥청(n.d.-a). 치유농업. *농사로*. 2025/10/24.
- 농촌진흥청(n.d.-b).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ON*.
- 대구의대학교 평생교육원(n.d.). 치유농업사 법·제도. 2025/10/24.
- 이수정(2021. 5. 13.). 치유농업활동 “치매 예방에 효과적”. *농업진흥청*.
- 이한성(2025. 9. 25.). 자연과의 교감. 서울아산병원 스트레스심리상담센터 정신건강칼럼.
- 홍인경, 김광진, 정순진, 이상미(2024).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 *농촌지도와 개발*, 31(4), 177-192.
- Ellingsen-Dalskau, L. H., de Boer, B., & Pedersen, I.(2021). Comparing the Care Environment at Farm-Based and Regular Day Care for People with Dementia in Norway—An Observational Study. *Health &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29, 506-514.
- Engemann, K., Pedersen, C. B., Arge, L., Tsirogiannis, C., Mortensen, P. B., & Svenning, J.-C.(2019). Residential Green Space in Childhood Is Associated with Lower Risk of Psychiatric Disorders from Adolescence into Adulthood.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6(11), 5188-5193.
- Finnanger Garshol, B., Ellingsen-Dalskau, L. H., & Pedersen, I.(2020). Physical Activity in People with Dementia Attending Farm-Based Dementia Day Care—A Comparative Actigraphy Study. *BMC Geriatrics*, 20, Article 219.
- Ibsen, T. L., Kirkevold, Ø., Patil, G. G., & Eriksen, S.(2020). People with Dementia Attending Farm-Based Day Care in Norway—Individual and Farm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articipants’ Quality of Life.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28, 1038-1048.
- Louv, R. (2005). *Last child in the woods: Saving our children from nature-deficit disorder*. Algonquin Books.

- Murray, J., Wickramasekera, N., Elings, M., Bragg, R., Brennan, C., Richardson, Z., Wright, J., Llorente, M. G., Cade, J., Shickle, D., Tubeuf, S., & Elsey, H.(2019). The Impact of Care Farms on Quality of Life,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Different Population Groups: A Systematic Review. *Campbell Systematic Reviews*, 15(4), e1061.
- Pedersen, I., Patil, G., Berget, B., Ihlebæk, C., & Gonzalez, M. T.(2015). Mental Health Rehabilitation in a Care Farm Context: A Descriptive Review of Norwegian Intervention Studies. *Work*, 53(1), 31-43.
- Zhang, Y., Wu, T., Yu, H., Fu, J., Xu, J., Liu, L., Tang, C., & Li, Z.(2024). Green Spaces Exposure and the Risk of Common Psychiatric Disorders: A Meta-Analysis. *SSM - Population Health*, 25, 101630.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공정성 인식 영향 요인: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석철*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Factors Influencing Home Care Workers' Perceptions of Wage Justice: Focusing on Seoul

Seok Cheol Ha*

*Research Fellow, Seoul Welfare Foundation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재가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임금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2024년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자료 중 재가요양보호사 4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임금공정성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임금 요인(산출 요인)과 돌봄부담 요인(비용 요인)을 중심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간당 임금은 임금공정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당 유무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중증 대상자 비율, 노동인권 침해 빈도, 질환 및 사고 경험과 같은 돌봄부담 요인은 모두 임금공정성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식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공정성 인식이 단순한 임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노동의 강도와 위험, 근로환경 등 투입 비용과 산출 간의 불균형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수가 인상이나 임금 보전과 같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중증 돌봄에 대한 보상 강화,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노동인권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주제어: 재가요양보호사, 임금공정성, 산출 요인, 비용 요인, 돌봄부담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perceptions of wage justice among home care workers in Seoul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e analysis is based on data from 400 home care workers obtained from the 2024 Seoul Long-Term Care Workforce Survey. Perceived wage justice was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emphasis on wage-related factors (output factors) and care-burden factors (input factors).

The results indicate that hourly wages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perceptions of wage justice, whereas the presence of allowances does not exer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By contrast, care-burden factors including the proportion of severely dependent care recipients, the frequency of labor-rights violations, and experiences of illness or injury during care work significantly reduce the perceptions of wage justi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age-justice perceptions among home care workers are determined not only by wage levels but also by perceived imbalances between labor inputs and compensation outputs, such as the intensity and risks of care work and working conditions. Therefore, improving the treatment of care workers requires a comprehensive policy approach that extends beyond wage increases or financial compensation alone and includes enhanced remuneration for severe care work, institutional measures to reduce care burdens, stronger protection of labor rights, and efforts to improve social recognition of care work.

Key words: home care workers, wage justice, output factors, input factors, care burden

*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skclha@welfare.seoul.kr)

I. 서론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 중심의 돌봄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것의 도입 이후 수급자 수와 서비스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노인 돌봄의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제도의 양적 성장에 비해 돌봄 서비스를 실제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처우 문제는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요원 중에서도 임금 수준과 처우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평가된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임금은 109.9만 원으로, 물리(작업)치료사(218.7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주관적 임금 만족도 역시 요양보호사의 불만족 비율이 38.8%로 장기요양요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윤경 외, 2022). 이러한 저임금 구조는 요양보호사의 직업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장기요양서비스 인력 기반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는 인력 공급 감소로 이어져 향후 장기요양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공급은 향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며(이희승 외, 2023), 서울시의 경우 2026년 이후부터 요양보호사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본격화되어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3,353명과 8,297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이희승 외, 2023). 더욱이 이러한 인력 부족은 영세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을 야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노인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울시는 5인 미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수 분포한 지역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폐업이 곧바로 돌봄 공백으로 연결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림 1] 참고).

한편, 요양보호사 중에서도 재가요양보호사는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돌봄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시설요양보호사와 구별되는 근무 특성을 지닌다. 재가요양보호사는 업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과도한 요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신체적·정서적 부담 역시 큰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과 보상체계는 이러한 노동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이처럼 재가요양보호사가 투입하는 노동 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산출로서의 보상 간의 불균형은 임금에 대한 주관적 평가, 즉 임금공정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임금공정성 인식은 단순한 임금 만족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노동 투입과 보상이 얼마나 정당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주관적 인식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임금공정성 인식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조영대, 김정애, 2009; 김환, 임유신, 강원석, 2017; 박정우, 2017), 특히 감정노동과 대인 서비스 노동의 비중이 높은 직종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객관적인 임금 수준이나 제도적 수가 구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임금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실증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임금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인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개인이 인식하는 돌봄부담의 정도, 근로환경, 노동인권 침해 경험, 사회적 인정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임금공정성 인식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단독 근무와 관리·감독의 한계로 인해 노동인권 침해나 위협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돌봄부담 요인이 임금공정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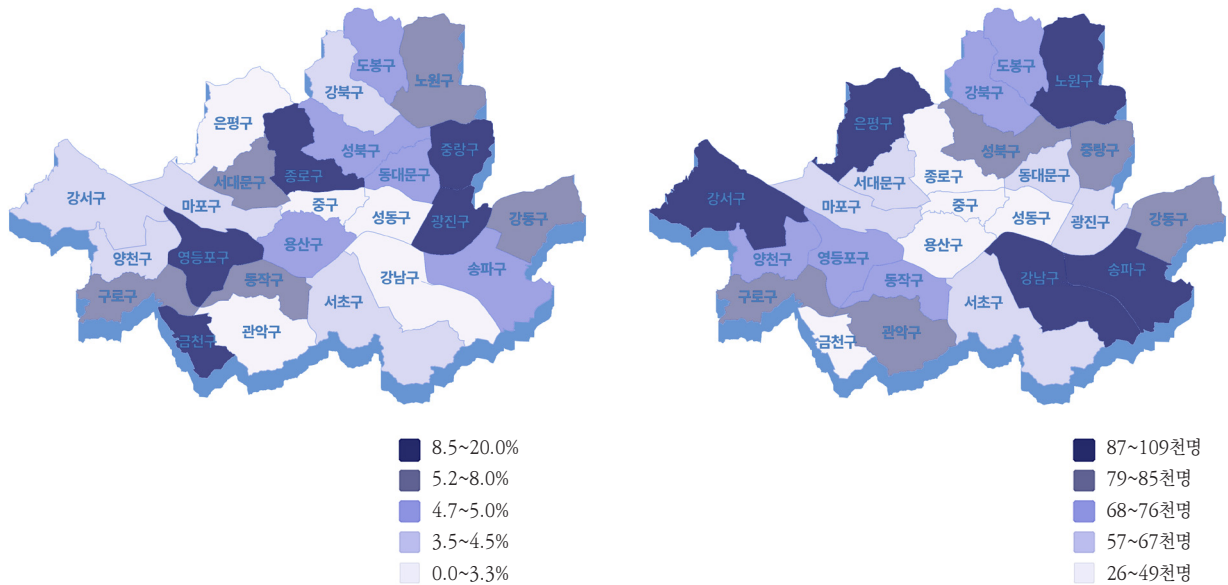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서울시 재가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임금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임금 요인(산출 요인)뿐만 아니라, 재가요양보호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돌봄부담 요인(비용 요인)을 함께 고려한 분석틀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임금공정성 인식을 단순히 임금 수준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돌봄 노동의 특성과 근로환경을 반영한 종합적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공정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5인 미만 재가장기요양기관 분포]

[65세 이상 인구 분포]



주. 서울시(2024a, 2024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구성

[그림 1] 서울시 자치구별 소규모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인구 분포

II. 문헌검토

1. 공정성 이론

임금공정성 인식은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 특히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의 개념에서 이론적 토대를 살펴볼 수 있다. 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투입한 노력 및 비용과 그에 대한 보상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공정성을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경우 정신적 고통(distress)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개인은 불공정성에 기인한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정성 회복을 위한 행위를 한다(Huseman, Hatfield, & Miles, 1987). 공정성 이론은 이후 조직 연구와 노동 연구 분야에서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과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 관계적 공정성(interpersonal justice)이라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확장되었다(Colquitt, 2001). 분배공정성이 형평, 평등과 같은 분배와 관련된 규범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라면 절차공정성은 의사결정 과정이나 방식에서의 공정성을 의미하고, 관계적 공정성은 의사결정자가 구성원을 대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Colquitt, 2001). 이 가운데 분배공정성은 노동의 대가로서 제공되는 임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개념으로, 임

금공정성 인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이론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임금공정성 인식은 단순히 임금의 절대 수준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개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노동 투입과 보상 간의 상대적 균형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임금 수준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감내하는 노동 강도나 책임 수준, 위험, 감정적 부담이 크다고 인식할 경우 임금에 대한 공정성 평가는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반대로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투입 대비 보상이 적절하다고 인식될 경우, 공정성 인식은 긍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임금공정성은 객관적 보상 수준과 더불어 노동자가 인식하는 투입 비용의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개념이다.

상기의 내용을 재가요양보호사에게 대입시키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재가요양보호사는 노동 과정에서 자신이 투입한 노력, 시간, 기술, 경험, 책임, 감정노동 등 다양한 투입(input) 요소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임금, 수당, 복지, 사회적 인정과 같은 산출(output) 요소의 비율을 기준으로 공정성을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동료 노동자나 유사 직종 종사자, 혹은 사회적으로 비교가능한 타인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만약 재가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 비교 대상보다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불공정성 인식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로 불만족, 좌절감, 분노,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긴장 상태(distress)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심리적 불균형 상태를 회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노동 강도나 직무 태도 등을 변화시키고 이직(의도) 등의 행위를 보일 수 있다.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은 이러한 공정성 이론의 적용에 있어 특히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재가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시간제 노동자가 아니라 일상생활 지원과 신체적 돌봄, 정서적 지지, 위기 상황 대응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증 수급자를 담당할 경우 신체적 부담과 정서적 소진이 더욱 가중된다. 또한 감정노동, 노동인권 침해 경험, 질병 및 사고 위험과 같은 요소는 요양보호사의 노동 투입을 질적으로 확장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돌봄부담이 임금이나 수당, 보상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경우, 임금에 대한 분배 공정성 인식은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공정성 인식은 시간당 임금과 같은 산출 요인뿐만 아니라 돌봄 강도, 중증 대상자 비율, 감정적·신체적 부담, 노동환경의 위험성 등 비용 요인을 함께 고려한 상대적 평가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분배공정성 관점은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공정성을 단순한 임금 수준의 문제를 넘어 노동 투입과 보상 간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는 임금 요인과 돌봄부담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실증 분석의 이론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며, 향후 임금 체계 개선 및 보상 정책 설계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임금공정성 인식은 개인이 투입한 노동 비용에 대한 산출로서의 임금이 자신의 기대 수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 형성하는 주관적 평가로 정의할 수 있다(하석철, 양지훈, 2019; 임정미, 2023). 이는 임금의 절대적 수준이나 객관적 금액 자체보다는 노동자가 인식하는 노력, 책임, 부담, 위험 등의 투입에 비해 현재의 보상이 적절한지에 대한 상대적 판단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따라서 동일한 임금 수준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직무 특성이나 노동 환경, 기대 수준에 따라 임금공정성 인식은 상이하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임금공정성은 단순한 임금 수준 지표로는 포착되기 어려운 주관적 차원의 인식 변수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임금공정성 인식을 장기요양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제한적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장기요양 분야에서도 임금공정성 인식은 임금 수준과 같은 산출 요인뿐만 아니라 직무 부담, 근로환경, 조직의 지원 수준, 사회적 인식과 같은 다양한 투입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하석철, 양지훈, 2019; 임정미, 2023). 이는 장기요양 노동이 단순히 노동시간이나 임금 단가로 환원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며, 임금공정성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질적 측면과 환경적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인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하석철, 양지훈, 2019)는 이러한 논의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과 같은 산출 요인보다 수행하는 과업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 투입 요인이 임금공정성 인식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보호사가 경험하는 노동의 강도와 부담, 그리고 이를 둘러싼 근로 여건이 임금 수준 자체보다 임금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더 큰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지급되더라도 직무 부담이 과중하거나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인식될 경우, 임금에 대한 공정성 평가는 부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임정미, 2023) 역시 유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초과근무의 양, 폭력이나 위협과 같은 위험 경험 수준, 직무만족도, 승진기회에 대한 만족도 등 직무환경적 특성이 임금공정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장기요양 분야 종사자들이 임금을 평가할 때 단순한 보상 수준뿐만 아니라 노동 과정에서 감내해야 하는 위험과 부담,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인정과 성장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임금공정성 인식이 개별 근로자의 노동 경험 전반을 반영하는 포괄적 지표임을 보여준다.

한편, 재가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를 분석한 연구(이윤정, 2025)는 임금공정성 인식이 개인적 요인이나 일부 직무 특성보다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설명 요인으로 작동함을 제시함으로써 임금공정성 인식의 정책적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임금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불공정한 상태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 동기로 작동하여 이직의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공정성 이론에서 제시하는 불공정 인식과 행동 반응 간의 연관성이 장기요양 노동 맥락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함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장기요양 현장에서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임금공정성은 임금 수준이라는 산출 요인과 함께 직무 부담, 근로환경, 위험 경험, 조직적 지원과 같은 투입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형성된다. 특히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상 업무 강도와 위험이 표준화되기 어렵고, 이러한 투입 비용이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경우 임금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이러한 부정적 임금공정성 인식은 직무 태도와 이직 행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공정성은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 지속성과 인력 안정성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2024년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장기요양요원의 개인적 특성과 직무특성, 근로조건, 돌봄부담 및 임금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분석대상은 요양보호사 중 재가요양보호사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시설요양보호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증도의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돌봄부담 측면에서 유의미한 편차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재가요양보호사 400명이다.

2. 변수의 정의

종속변수는 임금공정성 인식으로, '현재 받고 있는 급여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값을 활용하였다(1=매우 적절하지 않음~5=매우 적절함). 독립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산출 측면에서의 임금 요인은 시간당 임금과 수당 유무를 이용하였다. 시간당 임금은 월 평균 급여를 월 평균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하였고, 수당 유무는 장기근속장려금, 직책수당, 기타 수당 중 한 개 이상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1의 값을 부여하고 어떠한 수당도 받지 않는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비용 측면의 돌봄부담 요인은 중증 대상자 비율과 노동인권 침해 빈도, 질환 및 사고 경험 유무로 측정하였다. 먼저, 중증 대상자 비율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대상자 중 1~2등급 대상자의 비율로 구성하였고, 노동인권 침해 빈도는 정서적, 신체적, 성적 폭력 및 부적절한 업무 요구 경험 빈도에 대한 각 응답 값(0=경험 없음~5=주 3회 이상)을 합하여 산출하였다. 질환 및 사고 유무는 최근 1년 내 장기요양 업무 중 경험한 질환 및 사고의 유무로 측정하여 질환 및 사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1의 값을, 없는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요인들과 함께 연령과 교육수준(1=무학~7=대학원 졸업 이상), 장기요양기관 근무기관(개월), 고용형태(1=정규직, 0=비정규직)를 통제변수로 함께 다루었다.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분포를 파악한 후, 임금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임금공정성 인식은 평균 2.83점으로 다소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었고, 시간당 임금은 평균 1.23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급여 대상자 중 중증 대상자의 비율은 평균 16%이었고, 노동 인권 침해 빈도는 1.54점으로 매우 많은 수준은 아니었다. 더불어 재가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61.16세이였으며, 평균 59.26개월(약 4.9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함께 재가요양보호사의 29.75%는 장기근속장려금과 직책수당 등을 받고 있었으며, 약 5.75%는 장기요양업무 중에 질환 또는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87.50%로 매우 큰 비중을 보였고, 교육수준은 고졸이 82.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대졸 이상과 중졸 이하가 각각 10.50%와 7.50%로 뒤를 이었다.

2. 임금공정성 인식에 대한 산출과 비용 요인의 영향력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공정성 인식에 대한 산출 측면(임금 요인)과 비용 측면(돌봄부담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Model 1에서는 연령과 장기요양 경력, 고용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어 고연령이고, 장기요양 경력이 많으며, 정규직 재가요양보호사일 경우 임금공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1〉 분석대상자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율	
임금공정성 인식	2.83	0.71	-	-	
시간당 임금	1.23	0.11	-	-	
중증 대상자 비율	0.16	0.28	-	-	
노동인권 침해 빈도	1.54	2.54	-	-	
연령	61.16	5.92	-	-	
장기요양 경력	59.26	33.21	-	-	
수당 유무	유	-	-	119	29.75
	무	-	-	281	70.25
질환 및 사고 유무	유	-	-	23	5.75
	무	-	-	377	94.25
고용형태	정규직	-	-	50	12.50
	비정규직	-	-	350	87.50
교육수준	중졸 이하	-	-	30	7.50
	고졸	-	-	328	82.22
	대졸 이상	-	-	42	10.50

〈표 2〉 임금공정성 인식에 대한 임금과 돌봄부담 요인의 영향

구분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Coef.(SE)	Coef.(SE)	Coef.(SE)	Coef.(SE)	
Intercept		1.349(.572)*	.676(.706)	2.408(.583)***	1.263(.685)†	
통제 변수	연령	.020(.006)**	.021(.007)**	.010(.006)	.012(.006)†	
	교육수준	.024(.080)	.012(.080)	-.050(.078)	-.072(.078)	
	장기요양 경력	.002(.001)*	.002(.001)†	.002(.001)*	.002(.001)	
	고용형태	.296(.104)**	.327(.110)**	.428(.111)***	.462(.114)***	
독립변수	임금 요인	시간당 임금	-	.527(.311)†	-	.938(.305)**
		수당유무	-	-.048(.086)	-	.013(.083)
	돌봄 부담 요인	중증 대상자 비율	-	-	-.561(.125)***	-.617(.125)***
		노동인권 침해 빈도	-	-	-.036(.015)*	-.041(.015)**
	질환 및 사고 유무	-	-	-.285(.143)*	-.353(.143)*	
R ² (Adj. R ²)		.068(.059)	.075(.061)	.141(.126)	.162(.143)	
F		7.23***	5.33***	9.23***	8.38***	

†p<.10, *p<.05, **p<.01, ***p<.001

Model 1에 임금 요인을 추가한 Model II에서는 시간당 임금이 많을수록 임금공정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Model 1에 돌봄부담 요인을 추가한 Model III에서는 돌봄부담 요인으로 투입한 중증 대상자 비율, 노동인권 침해 빈도, 질환 및 사고 유무의 세 변수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중증대상자의 비율이 높고,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한 빈도가 많으며, 질환 또는 사고를 경험한 경우 임금공정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수를 함께 투입한 Model IV에서는 시간당 임금의 영향력이 보다 강화되고, 돌봄부담 요인으로 투입한 중증 대상자의 비율과 노동인권 침해 빈도, 질환 및 사고 유무 모두 통계적 유의미성을 잃지 않고 임금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은 그것의 양이 많을수록 임금공정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반면 높은 중증 대상자 비율과 다수의 노동인권 침해 경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중 질환이나 사고의 경험은 임금공정성 인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시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문제가 단순히 객관적 차원의 임금 문제가 아니라 돌봄노동의 특성과 근로환경, 그리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주관적 인식의 문제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임금공정성 인식이 임금이라는 산출 요인과 돌봄부담 및 근로조건이라는 비용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선, 임금공정성 인식은 시간당 임금과 같은 산출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임금 인식이 절대적인 임금 수준보다는 ‘투입한 노동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라는 상대적 평가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동일한 임금 수준이라 하더라도 돌봄부담이 크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경우 임금은 불공정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중요한 결과는 돌봄부담 요인이 임금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중증 수급자의 비율이 높거나, 신체적·정서적 부담이 큰 돌봄을 수행할수록, 그리고 노동인권 침해나 업무 중 질병·사고를 경험한 경우 임금공정성 인식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이는 재가요양보호사의 저임금 인식이 단순히 양적인 차원에서 적은 임금이라는 차원을 넘어 과도한 노동 강도와 위험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정책이 임금 인상에만 국한되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수가 인상과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중증수당 인상과 같은 경제적 지원의 확대는 여전히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특히 현재 수준의 중증수당은 중증 수급자 돌봄에 따르는 신체적 부담과 위험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이는 중증 대상자 돌봄 기피와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증 돌봄에 대한 보상 체계를 재설계하고, 돌봄 난이도와 부담이 임금에 보다 명확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 역시 필수적이다. 보조인력 지원, 대체인력 확보를 통한 휴식권 보장, 신체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조기기 및 스마트 기술의 활용은 재가요양보호사의 돌봄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기술적·제도적 지원은 현장의 여건과 수급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단순한 장비 보급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노동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 역시 임금공정성 인식 개선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재가요양보호사는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근무한다는 특성상 부당한 요구나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현장 활용도가 높은 인권 보호 수단의 도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종합하자면,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공정성 인식은 임금 수준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돌봄노동의 강도와 위험, 근로환경, 사회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공급과 돌봄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과 더불어 돌봄부담 완화, 노동환경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접근이 이루어질 때, 장기요양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 역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서울시(2004c)는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재가요양보호사의 돌봄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좋은돌봄인증기관을 활용하여 1인 돌봄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노인에게 2인 1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추가 인력 1인에 대한 인건비는 1일 4시간, 월 최대 80시간

까지 서울시가 지원한다. 만약, 2인 1조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고난도 돌봄수당(시간당 5천 원)을 제공해 중증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회피를 예방하고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제적 지원을 보강할 계획이다¹⁾. 이와 같은 서울시의 계획은 중증 대상자에 대한 돌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인권 침해와 질환 및 사고 역시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공정성 인식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과 함께 질환 및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돌봄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이고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둘러싼 정책의 변화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들이 요양보호사의 돌봄부담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임금공정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공급, 더 나아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관련 연구와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환, 임유신, 강원석(2017). 임금의 공정성 지각과 조직지원인식이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4(2), 59-84.
- 박정우(2017). 임금공정성이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경영학회지*, 14(4), 257-275.
- 법제처(202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2025-115,20250701\)](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2025-115,20250701)). (검색일: 2025.12.27.)
- 서울시(2024a).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통계. 서울시 내부자료.
- 서울시(2024b). 주민등록인구 통계.
- 서울시(2024c).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 서울시 복지실 내부자료.
- 이윤경, 이선희, 강은나, 김세진, 남궁은하, 최유정(2022).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정(2025). 방문요양보호사의 임금 공정성 인식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산업연구*, 25(2), 299-305.
- 이희승, 경승구, 류재현, 권진희, 이정석, 이호용, 송미경, 정애리, 김연지(2023).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 임정미(2023).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직의 임금공정성 인식 영향요인.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49, 163-180.
- 조영대, 김정애(2009). 호텔조리종사원의 임금공정성, 직무만족, 이직의사, 직장몰입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3(4), 319-336.
- 하석철, 양지훈(2019). 요양보호사의 임금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46(1), 83-105.
- 하석철, 이정미, 이루리(2024).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실태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Colquitt, J. A.(2001). On the dimensionality of organizational justice: A construct validation of a measur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3), 386-400.
- Huseman, R. C., Hatfield, J. D., & Miles, E. W.(1987). A new perspective on equity theory: The equity sensitivity construc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2(2), 222-234.

1) 현재에도 중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산 수당이 존재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2의(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1회 18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인당 일 3천 원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처, 2025). 그러나 이러한 중증 수당은 현장의 재가요양보호사에게 적절한 보상으로서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중증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유인책으로도 작동하지 못한다(하석철, 이정미, 이루리, 2024).

포용과 사회통합 연구 투고 지침

제정 2024. 12. 23.

제1조(논문 모집 분야) 「포용과 사회통합 연구」 투고논문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정책, 복지, 권리 보호 및 사회적 인식 변화 등에 관한 독창성을 가진 학술 논문으로서 타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2조(논문투고 및 발간)

- 1) 「포용과 사회통합 연구」는 연 3회 발행하고, 발간일은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 2) 원고는 상시 투고할 수 있으며, 원고 접수는 언제든지 받는다.
- 3) 논문을 출간하고자 하는 발행예정일보다 45일 이전에 투고하여야 한다. 단, 투고논문 수에 따라 원고마감이 연장 또는 원고가 다음 호로 이월될 수 있다.

제3조(투고 요령)

- 1) 「포용과 사회통합 연구」에 게재를 원하는 투고자는 정해진 기일 안에 학술지 편집위원회 메일(incint@hunu.ac.kr)에 원고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투고자는 투고 논문이 「포용과 사회통합 연구」의 투고 지침 및 논문 작성 지침에 맞도록 작성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제4조 참고).

제4조(원고 형식)

- 1) 논문의 전체분량은 A4 규격용지 20매 내외로 하며, 논문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한글파일(.hwp)로 제출해야 한다.
- 2) 모든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집필되어야 한다.
 - ① 논문제목
 - ② 성명 : 성명은 논문제목 아래에 제시하고 소속, 지위, 이메일 주소는 각주 처리한다
예 : 홍길동*
각주 * 한국대학교 oo학과 교수, E-mail : welfare@hknu.ac.kr
 - ③ 국문초록(A4 1/2장 정도 :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함의 주제어 순으로 작성)
 - ④ 국문 주제어 및 투고일 기입
- 주제어 : 5개 내외 단어 제시
- 투고일 : OOOO. OO. OO.
 - ⑤ 본문
 - ⑥ 참고문헌
 - ⑦ 영문제목 및 영문초록(A4 1/2장 정도 : 성명, 직위, 소속,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함의, 영문 키워드 순)가. 영문성명(이름 성, 소속과 지위를 성명 옆에 괄호 처리한다.)
예 : Hong, Gildong(Professor, Hankook University)

나. 영문제목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작성한다.

예 : The Capacity to Consent to Research among Older Adults

다. 영문제목 및 영문초록은 전문교정을 통해서 국제학술연구자료로 질적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3) 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다음의 순에 의한다.

I. II. III.,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가. 나. 다.

4) 논문의 분량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① 글꼴 : 휴먼명조, 장평 95, 자간 -7

② 글씨크기

가. 제목 및 초록 : 제목 18, 저자명 12, 국문초록 10

나. 본문 : 10.5

다. 각주 : 9.5

라. 표 제목 및 내용 : 제목 10.5(제목은 표 위쪽 가운데 위치), 표내용 9.5

마. 그림 제목 : 제목 10.5(제목은 그림 아래쪽 가운데 위치)

바. 참고문헌 : 제목 13, 문헌목록 10.5

③ 편집용지 : 용지종류는 사용자정의 폭 175mm, 길이 247mm로 지정하며, 용지여백은 위쪽 19mm, 머리말 17mm, 아래쪽 20mm, 꼬리말 7mm, 왼쪽 /오른쪽 25mm로 설정한다.

④ 문단모양 :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모두 0 : 들여쓰기 10pt : 줄간격 160 : 낱말간격 0 : 정렬방식 혼합

5) 숫자는 두 자리 단위로 끊어서 표기한다.

예) 72억6천4백1만2천5백27, 3천4백27

6) 주를 다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꼭 지켜야 한다. 게재 심사는 양식에 맞게 구성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다. 본문과 주에서는,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년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1) 저자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는 본문 내에 인용될 때마다 모두를 표기한다.

예1) (홍길동, 2015), (Gilbert, 2015)

예2) (김철수, 이영희, 2015), (Castle & Ferguson, 2010)

(2)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첫 인용에는 모두 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에는 대표 연구자의 이름만 적고 외(또는 et al.)로 표기한다.

예1) (김수영, 이민홍, 손태홍, 2014), (Glass, McGaw, & Smith, 2015)

예2) (김지영 외, 2014), (Glass et al., 2015)

(3)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 대표 연구자 한 사람의 이름만 적고 외(또는 et al.)로 표기한다.

(4)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연도순(오름차순)으로 새미콜론을 사용하여 저술을 구분한다.

예) (박지영, 2008; 김선우, 2010; 최혜경, 2015), (Rubin, 2007; Kropf, 2010; Kolomer, 2015)

(5)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이 동일 문장을 위해 인용되었을 때에는 국내문헌, 국외문헌 순으로 제시한다.

예) (박지영, 2008; 김선우, 2010; 최혜경, 2015; Rubin, 2007; Kropf, 2010; Kolomer, 2015)

7) 참고문헌을 적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참고문헌 작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를 참조한다.

(1)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은 두 편 이상 제시할 시 출판년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2) 학위논문이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3)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본문 에 이용된 순서대로 출판년도 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표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4)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 다음의 예는 위에 기술한 참고문헌 작성원칙을 따른 것이다.

(1) 서적: 저자명(발행연도). 책 제목(*italic*). 발행처 소재지: 발행처. 책 제목(국문은 진하게 & 영문은 이탤릭).

① 단독 저서의 예

최재성(2015). 노인요양원과 문화 변화. 서울 : 집문당.

Quadagno, J. S.(1999). Aging and the Life Course :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Boston : McGraw-Hill College.

② 2인 공저의 예

최성재, 장인협(2010). 고령화 사회의 노인 복지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Hooyman, N., & Kiyak, H. A.(2013). Social Gerontology :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Boston : Pearson Higher Ed.

③ 3인 이상 공저의 예

박현식, 조성희, 김욱, 김정현(2012). 노인복지론. 경기 파주 : 양서원.

Ceci, C., Bjorndottir, K., & Purkis, M. E.(2012). Perspectives on Care at Home for Older People. New York : ROUTLEDGE.

④ 5인 이상 공저의 경우, 4인의 연구자의 이름만 적고 외(또는 et al.)로 표기한다.

⑤ 편저의 book chapter 예

원영희(2013). 현대사회의 노인에 대한 이해, 한국노년학포럼 엮음, 노인복지상담, 경기도 고양 : 공동체, pp. 11-34.

Gaugler, J. E., & Pamela T.(2015). Implications for Community-Based Long-Term Care Practice and Policy, in Family and Aging Policy(pp. 141-154), Edited by Francis G. Caro, London : The Policy Press.

(2) 논문 : 저자명(발행연도). 논문 제목. 학회명(영문은 이탤릭) 및 권/호, 권(호), 페이지.

① 저자가 1인인 경우

염지혜(2015). 한국노인의 낙상경험이 사망에 미친 영향. 노인복지연구, 68(1), 389-708.

Weil, J.(2015). Applying Research Methods to a Gerontological Population : Matching Data Collection to Characteristics of Older Persons. Educational Gerontology, 41(10), 723-742.

② 저자가 2인인 논문

전용호, 이금룡(2013). 노인 자원봉사의 인정과 보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62(1), 173-201.

Castle, N. G., & Ferguson, J. C.(2010). What is Nursing Home Quality and How is It Measured?. The Gerontologist, 50(4), 426-442.

③ 저자가 3인 이상인 논문

정순돌, 기지혜, 최혜지(2015). 연령통합의 개념, 철학, 사회적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68(1), 161-186.

Martinez, D. J., Kasl, S. V., Gill, T. M., & Barry, L. C.(2009). Longitudinal Association between Self-rated Health and Timed Gait among Older Persons. The Journal of Gerontology : So-

cial Science, 65B(6), 715-719.

(3) 번역서, 미간행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① 역서의 예

최혜경, 권유경 공역(2001). 성공적 노화, Kahn Robert and John Rowe, 1999, Successful Aging, 서울 : 신정.

② 미간행 학위논문의 예: 저자명(발행연도). 논문 제목(italic). 발행처 소재지: 발행처. 논문 제목(국문은 진하게 & 영문은 이탤릭).

오인근(2008). 노인 자살 생각에 대한 경로분석 : 저소득지역의 가구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Kim, K. M.(2000). The Impact of Caregiver Stressors, Resources, and Perceptions on Elder Abus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③ 연구보고서의 예

엄기욱(2013).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 인력 서비스기준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보건복지부.

(4) 인터넷 사이트

노인장기요양보험(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현황. <http://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자료실. 2015/02/20.

8) 본 논문작성 요령에 부합되지 않는 논문은 편집 원칙에 맞도록 수정을 가할 수 있으며, 기타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예 : APA 양식)에 준용한다.

제6조(저자의 익명성 처리)

- ① 논문 기고자는 저자의 익명성을 지키는 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심사용 원고의 경우 겉표지 외에는 저자 성명, 소속기관명, 인터넷주소, 동료에 대한 감사의 글 등 저자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② 심사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도 피한다.

제7조(저작권)

- ①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한경국립대에 귀속된다.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가 논문의 저작권을 한경국립대에 이양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장애인고등교육개발원의 사전 허가 없이 본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전재나 복사를 금한다.
- ③ 투고자는 게재를 통보받은 논문에 한하여 별지 2의 서식에 따른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장애인고등교육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4. 12. 23.>

이 지침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구윤리 준수 동의서

본인은 연구의 모든 과정, 연구논문의 작성 및 논문 게재 과정에서 「한경국립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연구윤리 준수 의사를 증명하기 위함	소속, 직위, 성명	준영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애인 고등교육 연구」에 논문 투고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장애인고등교육개발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저작권 이양 동의서					
논문 제목					
<p>한경국립대학교 장애인고등교육개발원에서 발행하는 포용과 사회통합 연구 제00권제00호에 게재된 위 논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p> <p>1. 저자 모두는 위 논문이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 모두는 위 논문이 포용과 사회통합 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의 저작권을 한경국립대학교에 양도합니다.</p>					
저자 구분	성명	소속/직급	이메일	핸드폰 연락처	서명
제1 저자					
교신 저자					
공동 저자1					
<p>※ 공동저자의 칸이 부족한 경우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자필 서명 후 스캔 본을 제출 바랍니다.</p>					
<p>■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p>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저작권 이양 동의를 증명하기 위함		소속, 직위, 성명, 이메일, 핸드폰 연락처		준영구	
<p>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애인 고등교육 연구」에 논문 투고가 불가합니다.</p>					
<p>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1.2em;">장애인고등교육개발원장 귀하</p>					

포용과 사회통합 연구 편집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2024. 12. 23.

제1조(목적) 「포용과 사회통합 연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 지침은 장애인고등교육개발원(이하 “개발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포용과 사회통합 연구」의 발간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과 편집위원(이하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부편집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개발원 원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연구위원 이상 및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추천하고 원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개발원 소속으로 편집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3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구성지침) 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구성한다.

- ① 다양한 학문적 시각이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활동이 특정한 시각이나 입장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 ② 세부연구분야별로 고른 분포를 이루도록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활동이 특정한 분야에 치중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③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이루게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활동이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
- ④ 특정 학교나 기관에 편집위원이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의 자격) 외부편집위원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 ① 박사학위 소지자
- ②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개발원 이상인 자

제6조(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① 게재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 ②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 ③ 편집위원회의 소집
- ④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제7조(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8조(기고논문 접수) 논문의 접수 방법과 처리는 다음과 같다.

- ① 기고논문작성: 기고논문의 작성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투고 지침에 따른다.
- ② 기고논문접수: 기고논문은 상시 접수하며,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시스템을 통해 투고한다.
- ③ 접수사항의 고지: 기고논문의 접수 시 편집위원회는 그 사실을 논문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제9조(기고제한) 위원장, 간사는 임기 내에 기고할 수 없다.

제10조(심사위원 위촉)

- ① 일정량 이상(약 3~4편가량)의 기고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논문 제목을 전송하고 논문마다 3인의 심사자를 추천받는다.
- ② 심사위원은 위원장이 편집인을 포함한 내부위원과의 협업을 통해 추천된 심사자 가운데 각 논문당 3인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제11조(연구윤리 준수 여부 사전점검)

- ① 투고된 논문(게재 부적합 판정 논문 제외)에 대하여 논문표절방지 프로그램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 ② 논문표절방지 프로그램 검사 결과 편집위원회가 판단하기에 표절로 의심되는 논문은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사전검사 내용을 저자에게 전달, 반송조치한다.
- ③ 저자에게는 사전검사 결과에 대해 소명하거나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재투고할 기회가 부여된다.

제12조(논문의 심사) 제10조 제2항에서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적절형, 문헌연구의 적절형, 분석모형 및 방법의 적절성, 논리전개의 일관성, 이론, 그리고 학문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제13조(익명성 유지) 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오직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관점에 의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과 기고자간의 익명성을 엄격히 유지한다.

제14조(게재 여부 판정)

- ①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투고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인적사항을 삭제한 심사용 논문을 보내 평가를 의뢰한다.
- ② 위촉된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평가란의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결정하고, 그 요지를 상술한다.

③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심사결과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의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의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의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의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의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15조(수정기고) 심사과정을 통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에 수정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개입) 포용과 사회통합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 ① 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초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7조(이월심사) ‘수정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을 주어진 기간 내에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다음 호에 이월하여 심사한다.

제18조(심사결과 통보) 심사가 완료된 후에 기고자에게 투고일과 심사완료일, 최종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19조(논문의 재심청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가 이러한 판정에 불복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이유와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기타) 원내에서 기고된 논문도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부칙 <제정 2024. 12. 23.>

이 지침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포용과 사회통합 연구 연구윤리 지침

제정 2024. 12.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경국립대학교 장애인고등교육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포용과 사회통합 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거나 개발원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연구자로서의 윤리적 의무와 책임 및 그 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은 본 개발원에 논문을 투고·발표하거나 또는 논문을 편집·심사하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적용한다.

제3조(연구윤리 위반행위)

- 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가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자신의 연구물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한 명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는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⑥ 연구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기타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의 기준은 한국연구재단의 윤리규정에 준한다.

제2장 저자 연구윤리

제4조(연구윤리의 준수)

- ① 저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표절)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삭제하여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을 기술하여서는 안 되며, 이전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또는 시도해서는 안 된다.
- ④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또는 편집위원)의 심사의견을 간소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5조(저자의 책임)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참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제6조(인용 및 참고의 표시)

- ① 저자가 공개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또한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제·해석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제7조(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차별 금지)**

- ①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 등에 차별하지 않고,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을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의 논문유사도검사를 통해 유사도를 검사하고, 유사도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에게 이 사실을 심사의뢰 시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의 선정)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연구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 ②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장 심사위원 연구윤리**제9조(심사의 성실 이행)**

- ① 심사위원은 학회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편집위원(회)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 ③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보완을 요구할 때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④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삼가 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의 비밀 엄수)

-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 ②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제11조(목적) 논문 투고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① 논문집의 투고 논문이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개발원장이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연구윤리위원회 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① 논문 투고자들에게 운영규정에 대한 공지와 홍보
- ②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윤리규정 위배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제14조(연구윤리위원회 운영)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투고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윤리규정 위반의 제소)

- ①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②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투고자는 본 개발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 ① 윤리규정 위반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② 윤리규정 위반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재) 논문 투고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내릴 수 있다.

- ① 본 개발원 3년 이하의 투고 금지(표절로 판정된 경우 3년간 투고금지)
- ②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사실 공시 및 인터넷 논문집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 ③ 부정행위 후 발간되는 첫 논문집에 부정행위 및 게재취소 사실 공시

제18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기타)

이상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24. 12. 23.>

이 지침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곽성준(한경국립대)
편집위원 강유석(한경국립대)
노승현(한경국립대)
김정현(한경국립대)
이민홍(동의대)
김석주(대구대)
이선우(공주대)
김혜정(경희대)
김지형(충북대)
장윤선(대구교대)
이상우(목원대)
조수민(한라대)
조지현(동신대)

포용과 사회통합 연구

Journal of Inclusion and Social Integration

2026년 2월 | 제2권 제1호

발행일 2026년 2월 28일
발행인 김찬기
발행처 한경국립대학교
경기도 평택시 한경대학로 35
Tel: (031)610-4600
홈페이지 <https://www.hknu.ac.kr/sites/ded/index.do>
디자인/인쇄 (주)에스콤정보시스템
Tel: (02)710-5355



포용과 사회통합 연구

Journal of Inclusion and Social Integration

2026년 2월 | 제2권 제1호